Plan an upcycle! 2021라운드테이블



"Plan an Jeonju upcycle 2021!" 라운드테이블

전주시새활용센터 다시봄 문을 열면서 마련한 라운드테이블은 작은 포럼 형식의 토론회로 준비했습니다. 다시봄이 만들어지기까지 많은 분의 노력과 관심이 있었습니다. 또한 다양한 관점에서 새활용센터의 역할과 비전을 요구받고 있기도 합니다. 새활용센터는 열린 다양한 방식의 토론회를 거쳐 그 역할에 관한 이야기들을 담아 내고자 합니다. 전주만의 새활용센터의 비전은 이런 관심과 대화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자원순환에 대한 실험과 도전,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져야 하는 시점에서 개관하게 되었습니다. 새활용센터는 새활용교육서비스, 관련 전문 인프라 양성, 새활용기업양성, 지속가능한 새활용산업기반구축, 새활용센터 공간 활성화라는 많은 역할을 해야 합니다. 적은 운영인력과 적은 예산으로 한계에 부딪히더라도 함께 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관심과 연대가 우리를 지탱해주리라 생각합니다. 여기 라운드테이블에 초대된 분들의 이야기는 일하는 영역과 이슈가 다양합니다. 새활용에 관련이 되기도 하고, 또는 기반이 될 수도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세 번의 토론에 15분의 토론자와 2분의 발제자를 모시고 진행했습니다. 쓰레기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지구와 우리의 일상에 대해서 나는 대화에는 분리수거 등 생활폐기물의 분리배출과 수거의 문제, 모든 폐기물의 순환자원으로의 전환, 재활용산업에서의 혁신과 새활용산업의 공공성에 대한 의견과 고민이 나열되어있습니다. 녹취와 함께 기록된 글은 구어체 그대로 작성되었습니다. 다소 전달과 이해가 어려울 수 있으나 공유하길 바라는 시민, 전문가, 활동가들을 위해 홈페이지에 파일을 첨부되었습니다. 모두를 위한 새활용, 모두가 공유하고 일상에 함께 하는 새활용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 사업개요

- 사업명 Plan an Jeoniu upcycle 2021! 라운드테이블
- 일 정 6월 1일(화)/2일(수)/4일(금) 16:00~18:00
- 장 소_ 전주시새활용센터 다시봄 4층 모임터
- 참여자 주제별 퍼실레이터 3명 각 라운드별 토론자 5명, 기록1명, 참관 2명

■ Schedule

일정	내 용	진행자	
6월1일 화요일 오후 4:00-6:00	1. "전주에서 사회적가치로 먹고살기" 1) 전주에 머물기로 한 청년들 2) 청년들에게 새활용센터의 역할은 ◆ 토론자 □ 설지희 : 썰지연구소 문화유산 큐레이터 □ 고현지 : 팜앤코 화장품 브랜드 대표 □ 김형준 : 토킹프로젝트 이사장, 영화 프로듀서 □ 김주미 : 전북대 문화인류학과 석사 재학 중 □ 박하솜 : 주, 커낵트 대표	퍼실레이터 장한결 (소우주 공동대표)	
6월2일 수요일 오후 4:00-6:00	2. 전주 쓰레기 제로 아이디어 정책 1) 쓰레기와 RE 2) 진짜 필요해? - 없어도 괜찮아! 3) what & how ◆ 토론자 □ 유지은 : 전북생명의 숲 사무국장 □ 모아름드리 : 프리데코 회장	퍼실레이터 최우순 (전주에너지센터장)	

"Plan an Jeonju upcycle 2021!"

	□ 모 아 : 모악산의아침/제로불모지 □ 김지영 : 잇잇대표 □ 박이슬 : 전주지속가능발전협의회 팀장	
6월4일 금요일 오후 4:00-6:00	3. 전주 새활용 소재개발 산업 가능성에 대하여 1) 전주시 자원순환의 정책적 제언 2) 업사이클의 지역 소재개발과 산업의 가능성 ◆ 토론자 □ 김세훈 : 전북녹색환경지원센터 연구위원 □ 장우연 : 전주시 정책연구소 책임연구원 □ 강재원 : 사람과 환경 대표 □ 고은경 : Ecogreen환경교육 연구소 대표 □ 문지현 : 전북환경운동연합 팀장	퍼실레이터 송상민 (전주시새활용센터장)

Plan an upcycle! 2021라운드테이블

<u>첫 번째 토론회</u> 전주에서 사회적 가치로 먹고살기

■ 일 시: 2021년 6월 1일(화) 16:00~18:00

■ 장 소: 전주시새활용센터 다시봄 모임터

■ 진행자: 장한결(소우주 공동대표)

■ 토론자: 설지희(썰지연구소 문화유산 큐레이터)

고현지(팜앤코 화장품 브랜드 대표) 김형준(토킹프로젝트 이사장, 영화 프로듀서) 김주미(전북대 문화인류학과 석사 재학 중)

박하솜(주, 커넥트 대표)

*본 토론자료는 녹취 후 기록하 자료입니다. 각 토론별 발제자료는 마지막에 있습니다.

전주에서 사회적 가치로 먹고 살기

녹취기록: 전북대학교고고문화인류학과 대학원생 김미라 참석: 전주시새활용센터 다시봄 정수경 팀장 전주시 자원순환과 임미현 팀장



장한결// 반갑습니다. 첫 번째 라운드 테이블 진행을 맡은 장한결입니다. 오늘 우리는 새활용센터의 활용이나 운영에 대한 내외부적인 관점을 청년들의 이야기를 통해 듣고자 마련한 자리입니다. 여기 오신 토론자분들은 일반 청년들이라기보다 정책사업이나 활동을 해오신 분들, 프로젝트 진행이나 지원사업을 운영해보신 경험이 있는 분들로 구성했습니다. 이런 속에서 본인들이 가진 통찰력으로 앞으로 시작될 새활용센터가 어땠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나누는 취지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저는 현재 소우주라고 하는 제로웨이스트샵을 동생하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전라북도 콘텐츠 코리아랩이라는 창작자분들 지원을 해드리는 지원사업 운영을 3년 정도 했습니다. 전주에 내려오기 전에는 아름다운 가게에서 일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경험에서는 자원순환에 대한 가치가실제로 일로써 직업인으로서 실행해본 적이 있었고, 이런 베이스가 있기 때문에 저에게 이번 자리를 진행할 수있게 기회를 주신 것 같습니다.

오늘 주제는 '전주에서 사회적 가치로 먹고살기'라고 잡아보았습니다. 지금 여기 계신 선생님들은 '단순히 돈만 벌 거나 내가 하는 활동으로 유명세를 취득하는 것보다는 '내가 좋아하는 일을 통해서, 나와 더불어 사회와 공동

체에도 좋은, 조금 더 나아가서는 지구에 이로운 가치를 가지고서 활동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회적 가치로 먹고산다고 했을 때 이게 과연 얼마나 가능한 얘기일지 또 어떤 식으로 해야 가능할지에 관한 얘기들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새활용센터에 대한 이야기로 돌아와서, 새활용센터 건물도 성매매 업소였던 곳이 외형이나 내부가 바뀌어서 지금 이런 형태를 갖춘 것입니다. 아직도 이 지역내에 업소들이 영업을 일부 하는 곳이기도 하고요. 그런 공간 안에서, 동네라고 하는 관점에서 어떤 가치를 추구하면 좋을 것인지 운영의 방향에 대한 선생님들의 기대를 같이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회적 가치를 얘기할 때 기준은 유엔의 지속가능발전목표1)에 두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비즈니스를 하든 어떤 활동을 하든 지속가능발전목표 안에서 본인이 추구하는 비전이라든지 아니면 내부적으로 작동하는 미션에 대한 얘기들을 같이 나누게 될듯합니다. 실제로 지금 하시는 활동이 전주시라고 하는 지역사회에서 어떤 영향을 끼치 거나 함께하는 타겟층 혹은 같이 교류하는 네트워크 안에서 어떤 상호작용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긴밀한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얘기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계신 분들이 전라북도 태생일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지역 태생이지만 나의 활동이나 일을 하기 위해 전주에 정착하신 분들도 있을듯합니다. 그렇게 제각각 다른 성장배경에서 전주라는 지역을 선택한 부분에 있어서 각자 다른 이야기들을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습 니다. 저의 본가는 서울에 있고 전북대학교에 진학하기 위해 전주에 내려왔었습니다. 대학생활을 하는 동안에 전 주에서 만나게 된 인연들을 통해서 전주에서 일하게 되었고, 그 이후에는 창업을 고민할 때 전주에 있어도 되겠 다는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표를 만들어보기는 했는데요. (발제문) 어디서 뭘 하고 살아야 하느냐는 표인데 요. 처음부터 만들지는 않았지만, 취업을 해야 하나, 창업을 해야 하나라는 고민을 했었을 때 취업을 할 거면 전 주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주에 좋은 일자리가 없다고 생각했었죠. 그래서 좋은 일자리를 위해서는 나 의 경험은 2)콘텐츠를 기반으로 하는 일을 하는 것을 위해서 서울로 올라가야만 커리어가 유지가 될 거라는 생각 을 했었습니다. 전주에는 좋은 일자리가 없다고 한 그것만큼이나 전주는 뭔가가 부족하고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 다. 더 재밌고 더 혁신적이며 아주 신선한 것들은 특별시에 있거나 광역시로 나아가야 존재하는 것 같다는 생각 이 들었습니다. 제가 얼마나 아주 신선한 사람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지점을 파고들면 일단 '*내가 얼마나 괜찮고* 멋있는 사람인지'에 대한 실험을 함과 동시에 전주에서 얼마나 잘 먹힐 수 있을지 실행하기에 전주시에서는 적은 비용을 투자할 수 있는 조건이 되어주는 거 같습니다. 망한다고 해도 본전이니까요. 서울이라고 하면 아마 그 시 도조차 할 수 없지만, 전주라면 저렴한 공간과, 작은 범위 활동을 할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이며, 함께하는 커뮤 니티들의 관계가 명확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물론 서로 불편할 수 있지만, 서로 사이가 안 좋아지면 보기 싫은 데 계속 만나야 하는 이런 상황들이 있을 수 있죠. 그렇지만 이렇게 더 쉽고 빠르게 한 다리만 건너면 서로 알 수 있다라는 것 자체가 사회적으로 잘 적용해서 만나게 되면 강력한 네트워크가 될 수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판단으로 소우주를 전주에서 하게 된 것입니다. 선생님들한테도 어떤 연유로 전주시에서 시작한 활동들이 어쩌면 강력한 동기가 있어서일 수도 있겠지만 어쩌면 자연스러웠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소개를 나눠 보겠습니다. 제가 토론자분들 작성된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썰지연구소 문화유산 큐레이터라고 되어 있지만, 연구 소 소장님이시죠. 설지희 소장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소개는 본인이 하는 비즈니스나 활동이 무엇인지, 그리고 사회적 가치라는 측면에서 무엇을 추구하고 계시는지 같이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착에 관한 얘기는 나중에 편하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설지희// 저는 일상의 문화유산이라는 슬로건으로 무형문화재 선생님들을 중심으로 문화유산을 대중적으로 알리자는 마음으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한국전통문화대학교에서 무형문화유산 내용으로 10년 정도 재학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저는 부산 사람입니다. 국립무형유산원에서 근무했었습니다. 전북 그리고 전주가 가장 전국에서 무형

¹⁾ 지속가능발전목표: 2015년 유엔 총회가 채택한 전세계적 목표로 17개의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제시하였다. 단 한사람도 소외되지 않고(Leave no one behind), 2030년까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모두 달성을 목표로 한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의 2016년 기자회견 중 "We don't have plan B because there is no planet B"라는 발언과 함께 기후변화에 대한 적극적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2). 17개의 항목에서 알 수 있듯이, 지속가능성은 환경 문제에 대해서만 논의하고 있지 않다. 개발도상국의 균형 있는 발전을 추구하며, 성별, 지역, 인종 및 국가에 따른 차별과 고통이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목표를 설정하였다

²⁾ 콘텐츠 : 인터넷이나 컴퓨터 통신 등을 통하여 제공되는 각종 정보나 그 내용물. 유·무선 전기 통신망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문자·부호·음성·음향·이미지·영상 등을 디지털 방식으로 제작해 처리·유통하는 각종 정보 또는 그 내용물을 통틀어 이른다.

문화재 분들이 많이 계시는 곳입니다. 보유자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국립무형유산원에서 자연스럽게 전주에 정착해서 썰지연구소를 첫 번째로 활동하기에는 적합하다는 생각으로 전주시에서 시작하게 됐습니다.

요즘 '가치 있는 소비'라는 이야기를 할 때 로컬에 관한 얘기나 무형문화유산에 관한 얘기나 아니면 에너지, 제 로웨이스트에 대한 얘기가 한 번에 논의가 되고 있더군요. 저는 그 지점이 자본주의가 얘기하는 효율이라는 키워 드로 가려졌던 프로세스를 고민하고 좀 더 건강한 방식으로 이 과정들을 보고 참여하고 직접 진행할 수 있지 않 을까 싶습니다. 그 프로세스에 공통점을 두고 싶습니다. 로컬이라는 것. 문화유산이라는 것. 제로웨이스트라는 것. 모두가 다 프로세스를 우리가 기존의 자본주의에서는 알지 못한 채 소비되어 있다라는 것이 가장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생산자를 좀 더 알 수 있을까. 내가 생산과정에 좀 더 참여할 수 있을까. 좀 더 건강하 게 파악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부분에서 지속해서 이런 가치 소비에서 키워드들이 언급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 고 있습니다. 조금 더 얘기를 더 하자면 현재 2003년 유네스코에서는 3무형문화유산 보호 협약이 가장 큰 무형 문화유산 담론으로 보고 중요한 사건으로 보고 있어요. 거기에서 당연히 지속가능성에 대한 이슈도 있었고 '왜 우 리는 무형문화유산을 유지해야 하는가'에서는 공동체의 삶 이전의 시대에서 지금까지 내려왔던 공동체의 삶과 그 공동체의 삶에서 나왔던 많은 유산. 그리고 단순히 전통을 보호해야 한다는 민족주의적인 생각보다는 좀 더 그 이전에 향유했던 것들의 가치가 중요한 논쟁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염색을 할 때도 화학 염료는 쓰 는 게 아니라 이전에 쪽 염을 쓰던 방법을 지금도 충분히 소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래전부터 지금까지 하던 어떤 집단, 일부 사람들이 있다면 좀 더 퍼질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이런 예전부터 내려왔던 건 강한 삶의 방식을 같이 향유 할 수 있는 어떤 시야가 필요하고, 없어지면 안 되는 것들, 이것을 어떻게 좀 같이 함께 나아갈 수 있을까 하는 것, 그게 저의 가장 큰 요즘의 포인트, 이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무형문화유산에서도 지속가능성에 대한 논의는 계속되고 있어요. 특히 성평등에 대한 부분도 물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조선 시대까지는 남성중심적인 직업군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여성이 벗어날 수 없는 구조였습니다. 사실, 현재에도 유지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단적으로 단청을 하시는 분들도 메인 헤드들은 다남자들이고요. 그게 여전히 오래된 전통이기 때문에 여성분들이 맨 위로 올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소비와 생산에서 보유한 전통 기술을 좀 더 시대에 맞게 이런 고민하고 있습니다. 저의 지금 큰 프로젝트로는 일반사람이 아닌 다양한 가치를 우선으로 사는 사람들, 즉 다양한 삶의 방식을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수집해야겠다생각해서 "from here : Say Your Story"라고 하는 플랫폼4)의 다양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홈페이지도 있긴 한데, 거기에 보면 무형문화재뿐만 아니라 제로웨이스트5)를 실천하시는 분들, 공예를 실천하시는 분들 또 다른 가치를 실천하시는 분들에 관한 이야기를 우선은 전주를 중심으로 점진적으로 담아내려 하고 있습니다.

장한결// 건강한 라이프스타일에 대한 얘기를 전통에서부터 쭉 이어져 온 무형유산으로 표현하시는 방식과 사고를 고민해 본 적은 없지만, 말을 듣자마자 프롬히어(from HERE)에 계시는 분들과 협업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그다음에는 민감성뷰티, 클린뷰티, 동물실험반대, 제로웨이스트를 해시태그로 달고 있는 팜앤코라고 하는 화장품 브랜드, 포레세 대표님 고현지 대표님 소개하겠습니다

고현지// 안녕하세요. 저는 포레세 대표 고현지라고 합니다. 대학을 마치자마자 바로 창업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포레세라는 이니셜 자체가 Forese로 해서 Economy, Society, Environment를 약자로 해서 지속가능한 삶의 방식을

³⁾ 무형문화유산 보호 협약: 유네스코는 상당히 오래전부터 무형문화유산 보호에 관심을 가져왔으며, 1997년 제29차 총회에서 산업화와 지구화 과정에서 급격히 소멸하고 있는 무형문화유산을 보호하고자 '인류 구전 및 무형유산 걸작 제도'를 채택했다. 이후, 2001년, 2003년, 2005년 모두 3차례에 걸쳐 70개국 90건이 인류 구전 및 무형유산 걸작으로 지정되었다. 무형문화유산의 중요성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식이 커지면서 2003년 유네스코 총회는 무형문화유산 보호 협약을 채택하였다.

⁴⁾ 플랫폼 : 플랫폼이란 용어는 16세기에 생성된 이후 일상생활이나 예술, 비즈니스 등의 분야에서 사용해 왔다(Baldwin & Woodard, 2009). 그러던 플랫폼이 오늘날에는 다양한 분야에 적용 가능한 보편적인 개념으로 확대되어 널리 사용되기에 이르렀다. 플랫폼에 관한 내용과 정의도 다양하다. 예를 들어, 다양한 상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하기 위해 공통으로 사용하는 기본 구조, 상품 거래나 응용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는 인프라, 반복 작업의 주 공간 또는 구조물, 정치·사회·문화적 합의나 규칙 등이 그 것

⁵⁾ 제로웨이스트 : 제로 웨이스트: 모든 제품, 포장 및 자재를 태우지 않고, 환경이나 인간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토지, 해양, 공기로 배출하지 않으며 책임 있는 생산, 소비, 재사용 및 회수를 통해 모든 자원을 보존하고자 하는 운동

꿈꾸자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요. 그래서 포레세 안에는 팜앤코라는 뷰티브랜드가 있고 이외에도 데일더마라는 화장품 커스텀 플랫폼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런데 이 팜앤코는 저희가 현재 가장 관심이 있었던 화장품 성분에서 시작이 됐었습니다. 성분은 화장품을 만들 때 제조과정에서부터 소재, 그리고 용기 등 환경에 유해성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아주 많습니다. 특히 성분 쪽에서는 현재 많이 알고 계시는 소듐라우레스설페이드⁶⁾라든가 아니면 환경적으로 산호초에도 유해성을 가진 성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뿐만 아니라 환경적인 소재들이 문제점을 일으키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포레세 자체에서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생각해서 팜앤코라는 민감성 피부를 위한 클린뷰티뉴스킨케어 브랜드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외에 화장품 커스텀⁷⁾ 셀렉⁸⁾을 하는 데일리더마 같은 경우도 저희가 창업을 시작하고 나서 진행을 하게 된 경우인데, 데일리더마 자체에서는 소비자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화장품에서 고객들에게 맞춤형을 제공하지만 이외에 부가적으로 소비자분들의 가치관과 삶의 방식 전반적으로 지속가능성을 추구하면 좋겠다고 해서 태어나게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이런 두 가지를 가지고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왼쪽 설지희(썰지연구소 문화유산 큐레이터) 고현지(팜앤코 화장품 브랜드 대표)

장한결// 그러면 팜앤코를 시작하시고, 데일리더마가 최근에 발생한 거네요. 듣다 보니 너무 반갑다고 생각했습니다. 질문을 드리자면 팜앤코 활동을 하시게 된 계기나 문제의식의 출발점이 일단은 화장품 안에 들어가는 성분들이 환경에 나쁜 영향을 끼치는 것들이 많다고 하는 걸 학창 시절에 아시고 그 문제에 대한 해결지점으로 그런 성분들을 빼고 건강한 것들을 만들어봐야겠다 생각하신 거 같아요. 언제부터 시작해 지금 얼마나 성장하셨는지 자랑 한번 해주세요.

고현지// 팜엔코는 포레세를 설립하기 이전부터 진행했었습니다. 제가 대학교 3학년 때 처음 와디즈라는 크라우드펀딩》

⁶⁾ 소듐라우레스설페이트 : 석유 화학계 합성계면활성제인 설페이트는 치약이나 샴푸 클렌저 바디워시는 물론 청소제 등에 첨가되어 거품을 내게 하는 성분으로 사용됩니다. 소듐 라우릴 설페이트(SLS) 소듐 라우레스 설페이트(SLES) 등은 그 중 심각한 성분

⁷⁾ 커스텀 : 기성복을 디자이너가 재가공하거나 디자이너의 의상을 양산하는 방식의 의복 패션.

⁸⁾ 셀렉 : select를 빠르게 줄여서 말하는 것. 여기선 선택이라는 뜻으로 사용.

을 통해서 진행하게 됐어요. 제가 화장품에 관심을 끌게 된 건 더 오래된 일인데, 9년 전에 화장품뿐만 아니라 환경에도 관심이 많아서 책도 읽으면서 화장품 성분을 따로 공부하게 됐어요. 성분을 공부하다 보니까 환경적으로 해로운 성분들이 많더군요. 그런데 광고나 마케팅 쪽에서는 클린뷰티¹⁰⁾, 그리고 이 외에도 성분이 EWG 그린 등급¹¹⁾ 등등으로 소비자들에게 우려할만한 광고를 많이 표기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을 공부하고 관심을 끌게 돼서 팜앤코라는 브랜드를 대학 내에 포앤코라는 화장품 동아리를 만들어서 그분들과 같이 브랜드를 운영하게 되고 지금 창업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팜앤코는 클린뷰티 철학을 통해서 현재 다른 개방형 장터나 플랫폼에 들어가 있지는 않고, 제로웨이스트샵에서 리필스테이션을 통해서 판매가 되는 상황입니다. 이외에도 개방형 장터에서 판매가 되면 우리의 철학과 맞는 비건이라는 클린뷰티 부분에서만 현재 판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장한결// 소우주는 제로웨이스트샵이여서, 처음 소개를 통해서 미팅했었는데요, 화장품을 성분으로 판매할 수 있게 벌크로 제공을 해주신다고 하시더라고요. 벌크12)로 판매하려면 제로웨이스트샵도 맞춤형 화장품 조제 관리사라고 하는 어려운 자격증을 취득해야 가능해서 현재 첫 번째 떨어지고 이번에 다시 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제로웨이스트에 대한 그러니까 환경에 영향에 끼치는 것을 좀 덜 해보자는 생각으로 기획하고 제조하고 판매, 유통의 단계까지를 고려하셔서 사실 더 많은 판로로 뿌렸을 때 더 많은 노출이 일어나고 더 많은 매출이 일어날 수 있음을 분명히 아실 텐데도 불구하고 그걸 지키기 위해서 더 많이 고민하시는 거 같습니다. 제로웨이스샵들과 연계함으로써 그들과 같이 잘될 수 있는 동반자적인 입장으로 가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저는 감동을 하는 거 같아요. 추가적인 질문을 드리면 화장품을 리필 할 수 있는 리필스테이션에만 납품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분명히 일반 소비자들에게 판매하실 때 크림이나 세럼 용기에 대한 문제가 요즘 화장품어택¹³⁾ 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서, 어떤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솔직하고 허심탄회하게 말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고현지// 저희도 리필스테이션을 하고 있지만, 따로 소비자분들에게 판매하고 있기도 해요. 그런데 소비자분들에게 판매할 때는 분명 용기와 2차 포장까지 완료되어야지만 판매를 할 수 있어요. 그 과정에서 생기는 쓰레기들이 아주 많아지는데, 이때 저희가 생각했던 부분은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어떻게 할 수 있는가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용기를 선택할 때도 단순하게 플라스틱으로 재활용성이 떨어지는 것들보다는 조금 더 소재를 고려해서 비용이 조금 더 비싸더라도 일반소재가 아닌 크래프트지나 아니면 재활용이 잘되는 ¹⁴⁾PP 소재, 이 외에도 유리용기 중에서도 GS인증¹⁵⁾을 받은 인증마크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제품을 생산하고 이 외에 단 상자를 제작할 때도 현재 사탕수수 부산물로 제작이 되고 소재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선택을 해서 현재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장한결// 그다음은 콘텐츠 쪽으로 들어가 볼게요. Docking, 만난다는 것과 Cinemathe que(시네마떼끄)의 합성어로 영

⁹⁾ 크라우드펀딩 : 자금을 필요로 하는 수요자가 온라인 플랫폼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 대중에게 자금을 모으는 방식으로, 종류에 따라 ▷후원형 ▷기부형 ▷대출형 ▷증권형 등 네 가지 형태로 나뉜다.

¹⁰⁾ 클린뷰티 클린뷰티란 제품의 성분이 무해해 사용자에게 악영향을 끼치지 않고, 재활용이 가능한 용기를 사용하거나, 동물실험을 배제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까지 고려한 뷰티용어.

¹¹⁾ EWG 그린 등급: EWG는 미국 비영리 환경 연구 단체로 화장품에 들어가는 성분의 유해 가능성에 따라 등급이 나누어집니다. EWG 등급은 가장 유해 성분이 낮은 등급으로 독성이나 유해성이 낮은 성분을 주로 첨가하였을 때, 안전하다고 책정되는 등급입니다. 유아 화장품이나 피부관리에 주로 테스트하게 되며, 민감한 피부에 사용 가능합니다.

¹²⁾ 벌크 : 정품과 동일하지만 박스 포장이 아닌 비닐봉지 포장되어 판매

¹³⁾ 화장품어택 : '플라스틱 어택'에서 모티브를 얻은 시민 환경 운동으로, 재활용이 어려운 포장재를 사용하면서도 '재활용 어려움' 등급표시를 면제 받으려 했던 화장품 업계를 상대로 이뤄졌다. 이 운동의 결과, 2021년 2월 23일 환경부는 화장품 용기에도 예외 없이 '재활용 어려움' 표시를 적용할 것을 행정 예고했다.

¹⁴⁾ pp소재 : 폴리프로필렌 IT용어사전

석유 분해가스 속에 포함되어 있으며, 폴리에틸렌의 중합(重合)과 같이 순수하게 만든 프로필렌 가스를 용제 속에서 특수한 유기 금속의 촉매로 상온, 상압에서 중합하여 만든 수지. 밀도는 플라스틱 중에서도 가장 가볍고(0.90~0.91), 기계적 강도가 크며, 내열성이 우수하고 비교적 투명하다. 또 고주파의 유전 특성이 좋다.

¹⁵⁾ GS인증 : 국산 소프트웨어의 품질을 증명하는 국가 인증제도. 제품이 사용될 실제 운영환경의 테스트시스템을 갖추어 제품(소프트웨어, 사용자 매뉴얼, 제품설명서)의 품질을 인증한다.

화를 만드는 청년들이 운명처럼 만났다 합니다. 어떤 운명인지 궁금한데요, 문화콘텐츠제작협동조합 도킹텍프로 젝트 협동조합 이사장 김형준님 소개 듣겠습니다.

- 김형준// 도킹텍이라는 협동조합을 운영하는 김형준입니다. 저희는 전주에 있는 콘텐츠 만드는 친구들이 모여서 협동조합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활동들을 할까 고민 중 제작하는 일들을 해보려고 했습니다. 서울이랑 다른 환경에 있는 로컬¹⁶⁾들이 힘들어하는 일들이니까요. 그래서 저는 아직도 서울에서 작업을 하고 있긴 한데요, 전주에서 같이 할 수 있는 것을 만들자 해서 모였습니다. 전주지역을 선택한 이유는 제가 전주지역 콘텐츠를 만들 기회가 생겨서 하다 보니 인프라들이 잘 갖춰져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활용해서 전주에 있는 친구들이 좀 더 나은 환경에서 제작하는 것이 되면 좋겠다 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은 제작 쪽으로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유휴공간을 활용하거나 아니면 그 지역에 있는 콘텐츠를 활용해서 상업활동이 일어날 수 있게끔 하는, 창작자들이 상업활동을 일어날 수 있게끔 하는 공간들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규모 다양성 영화관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효자동이랑 남부시장 쪽에 있는 유휴공간들을 활용해서 하고 있고요. 앞으로 3개월 정도 되면 남원지역에서 할 예정입니다. 전라북도 지역에 다양성 영화관을 만들어서 전라북도에서 만든 콘텐츠들을 상영할 기회를 만들어보는 사업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역 콘텐츠들이 잘 안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만들어져도 잘 모르세요. 전주지역에서 만들어지는 작품들 보신 경험들 별로 없으실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활용해서 청년들이 함께 해보자 해서 만든 단체입니다. 꾸준히 3년, 4년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의 적자이지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치실현에 관심이 있는 친구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 장한결// 추가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다양성 영화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간략한 설명이랑 왜 다양성 영화를 하시는지 그이유가 궁금합니다.
- 김형준// 일단 상업영화라고 하는 건 다 아시죠? 17)메인스트림에 있는 영화들을 보실 수 있는 극장들이 많습니다. 메인스트렘에서 하는 영화들도 지역에서 개봉이 잘 안 됩니다. 아시다시피 서울과 지방의 차이를 보시면 서울이 500 편을 하면 지방에서 300편 정도 개봉해요. 그러니 다양한 콘텐츠를 보실 수 없어요. 서울과 문화 격차가 있습니다. 지금 아직도 존재해요. 그런 격차들이, 개봉 영화들은 돈을 벌기 위한 영화기 때문에 지역에서 잘 되는 영화를 할 수밖에 없어요. 지역과의 격차들을 좀 줄이고 싶었어요. 전주 같은 지방에서 서울까지 가야 하는 환경이 너무 불편하잖아요. 만드는 것들도 여기서 만들어도 되는데 서울에 소개하기도 힘들고요. 그래서 그런 격차를 좀 줄여보고 싶어서 다양성 영화 공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양성 영화는 일단 상업영화를 배제하고 독립영화, 단편영화 이런 것들을 보여 드리고 있습니다. 작가들이 지역에 있는 주제를 갖고 있거나 그런 영화를 상영하는 영화관을 만들어보고 싶어서 시작하게 됐습니다.
- 장한결// 지역콘텐츠를 상영을 하고 계시는데요. 그러니까 다양성 영화, 전주에서 만들어진 것을 또는 다른 지역에 있는 친구들이 만든 작품들의 콘텐츠가 가지고 있는 매력이 뭘까요?
- 김형준// 일단 저는 여기에서 만들어진 지역 인재들을 지역에 남기고 싶었어요. 그것 때문에 퀄리티를 생각하지 않고 일단 상영을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이 친구들이 전주에서 영화학교를 나오거나 콘텐츠학과를 나와도 서울 쪽으로 가기 때문이에요. 이 도시에 인프라가 갖춰져 있는데도 서울 쪽으로 가는 이유가 뭘까 했는데, 여기서 상업적인 활동이 안 이루어지니까 그렇거든요. 원래 영화는 다 서울 쪽에서 상업활동이 이뤄지는 건데, 여기서 그렇게 할 수 있는 환경을 조금만 만들어주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그 친구들이 콘텐츠를 만들고 콘텐츠를 소비하게끔 소비 자들하고 연결해주면 지역에서 자생하는 콘텐츠들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서 이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에도 지역에서 30편, 40편 만들어진다 해도, 전주에 있는 분들은 그게 나온 지 모르세요. 이 친구들이 만들어 놓은 작품들이 뭐가 있는지 모르세요. 이것을 해결해주면 소비하는 친구들이 생기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소비하시는

¹⁶⁾ local 로컬: (현재 얘기되고 있거나 자신이 사는 특정) 지역의, 현지라는 뜻

¹⁷⁾ 메인스트림 ; main·stream (사상 견해 등의) 주류

2021 전주시새활용센터 다시봄 개관 주간행사 "Plan an Jeonju upcycle 2021!"

분들이 생기지 않을까, 관객들이 생기지 않을까 해서요. 지역에 있는 콘텐츠들을 살려야 지역도 살릴 수 있지 않을까요?

장한결// 잘될 수 있는 콘텐츠로 하시는 게 아니라, 누군가의 기획, 누군가의 가능성을 위해서 지금 활동을 하시는 건데 요. 더 잘되기 위해서 현재 절실하게 필요한 게 있다고 하면 뭐가 있을까요?

김형준// 저희가 만드는 건 콘텐츠 활용한 여행상품을 기획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화를 보러 오시는 거예요. 지역의 그 장소에 공간적 특성을 더해지는 영화를 말이죠. 전주 남부시장에서 운영했을 때도 시장에서 단편영화 상영을 일부러 진행했어요. 1,000만 명이 넘게 한옥마을을 오신다는데 남부시장으로 넘어오지 않고 있거든요. 야시장만 있었어요. 아래쪽에. 위에도 충분한 공간이 있고 활용할 수 있는 공간들이 있는데, 왜 아래쪽만 있을까 저희가 거기서 다양한 활동을 했었지요. DJ 파티도 해보고 엮어서 여행상품으로 만들어서 판매해보고요. 상품들 판매도 해보았습니다. 이런 것들을 여행상품으로 묶으면 어떨까 해서 전주에 오시면 영화를 보시고 전주 음식을 드시고 지역 콘텐츠를 즐기는 거죠. 지역 영화를 보시게끔 만들고, 상품을 만들어서 수익을 조금씩 늘려가고 있는 단계입니다. 저희가 남원 쪽에서도 일들을 만들고 있는데요, 전주와 남원이 비슷한 콘텐츠들이 많더라고요. 왜냐면 광한루가 있고 여기는 한옥마을이 있고 또 여기에는 여행상품으로 만들어서 같이 해보려고 사업을 늘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투자하고 있어요. 제작 콘텐츠들이 이제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다양한 영화제에 나가서 상을 받아온다든가 아니면 해외상영이 되던가, 전주에서 만들어진 영화가 해외에 상영이 되고 있거든요. 여기서는 안 된 것들이 말이죠. 그동안에 저희가 계속 투자하고 있지만 계속하면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왼쪽 박하솜((주)커넥트 대표) 김형준(토킹프로젝트 이사장, 영화 프로듀서)

장한결// 응원하겠습니다. 저도 아직 안 봤지만, 우리 친구들 데리고 영화관 가서 영화 한 편씩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마케팅부서를 소개합니다, 주식회사 커넥트의 대표님이신 박하솜 대표님 소개 부탁드릴게요.

박하솜// 저는 전주에서 나고 자라서 대학만 서울에서 나온 상태입니다. 서울에서 직장생활까지 이뤄지기는 했으나 결혼을 하면서 전주에 다시 살게 되었습니다. 결국 결혼하면서 전주에 다시 살아야 하는 그날. 어쨌든 슬펐어요.

왜 슬펐을까 생각하게 됐거든요. 저는 사회생활에 대한 굉장히 포부가 컸어요. 그렇지만 전주에서는 일할 공간이 없었던 거예요. 제가 전공한 것에 대해서 펼칠만한 가능성이 없었던 거예요. 그렇지만 결국은 해쳐나갔어요. 창업으로 말이죠. 일자리를 스스로 만든 거죠. 같은 생각을 하는 청년들이 많을 거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어쨌든 마케팅을 기반으로 한 IT 회사인 커넥트를 운영하게 된 계기는 의상뷰티 블로그를 운영하다가 파워블로그가 되고, 자연스럽게 의뢰가 들어오면서 제가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탤런트를 가지고 일자리를 창출해내야 하겠다 생각을 했었던 거 같아요. 골목상권의 활성화를 도모해보면 좋겠다고 생각하면서 일자리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처음 순서를 잡았던 게 동문이었어요. 동문에 저희 첫 번째 거래처가 생겼었고, 그 거래처를 중심으로 활성화를 도모하다 보니 시와 연계된 프로젝트를 하게 됐고, 자연스럽게 마케팅이라는 거를 저의 업과 가치를 실어서 할 수 있음이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진행했었는데요. 청년들과 골목상권에 계신 분들을 연계해서 마케팅 수업을 청년에게 해드리고, 이걸 습득한 청년들은 자기의 실력을 맘껏 발휘해서 마케팅으로 풀어보는 거였죠. 수수료가 없는 마케팅이 이루어졌고, 교육으로 인해서. 이 둘의 니즈¹⁸⁾를 충족시키는 것을 소상공인연합회와 주관, 주최로 함께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게 저희 첫 번째 활동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동문 골목길 레이스였는데요. 동문에 사람이 오지 않는 골목에 사람들을 어떻게 끌어드릴까. 게임을한 번 해보자 생각했어요. 런닝맨 비슷한 커리큘럼을 만들어서 사람을 유입해서 진행했습니다. 두 가지 모두 굉장히 성공적이었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결합이라는 이름이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외부에서 직업을 경험해 보지 못했거나 고졸이어도 저희로 입사를 시켰고, 대학을 갓 졸업한 경력이 없는 청년들과 함께 세팅되었어요. 현재는 저를 포함해서 인턴과 정직원을 합쳐 12명 정도 됩니다. 이분들도 저와 함께 성장을 했던 거 같아요. 당연히 처음에는 퀄리티 문제가 있었습니다. 당연히 금액도 적게 받았고요. 우리 바닥부터 시작해보자고 생각했어요. 작게 우리 실력을 키워가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현재는 퀄리티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었어요. 4~5년 정도 지나니 저와 직원들이 함께 성장한듯합니다. 현재 초창기 멤버들이 남아있는 상태이고 새로운 직원들도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자체적으로 커넥트에서 지향하고 있는 건 워라밸!의이에요. 출퇴근에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오고 싶으면 오고 가고 싶으면 가되, 일 처리만 잘될 수 있으면 해외 나가서 일해도 되고 서울 가도 되고 마음껏 하고 있어요. 심지어는 저는 이런 컴플레인을 받았어요. 나는 9시부터 6시를 지키고 싶다고요. 회사 내에 규율들이 자연스럽게 내규로 정해지는 안에서는 조금 자유롭게 하드웨어일이가 정해져 가고 있습니다.

지금 전주 자활센터하고 협약을 맺은 부분이 있고, 사회적기업으로 5월 12일 자 인증을 받았습니다. 지역 청년들이 외부로 나가지 않게끔 교육해주고 잡아주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일련의 과정들이 저희의 중요임무이었습니다. 성과가 하나 나왔어요. 자체적으로 커가고 있는 것도 성과지만 전주 자활센터와 협약을 하고 거기에 있는 청년들에게 마케팅교육을 해주면서 인턴으로 데리고 있는 거였죠. 한 6개월 정도 함께 생활하면서 저희 것을 전수같은 느낌으로 진행되었고, 저희도 도움을 받으면서 성장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제가 외부로 일을 맡길 수 있을 정도로 3명 정도가 구축되어 제가 전주자활센터에 되려 외주를 맡기는 일이 됐습니다. 센터장님도 좋아하셨죠. 청년들도 마치 전문가가 된 느낌이어서 좋다는 피드백이 있었고, 우리끼리 뭔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다 느끼는 거 같아요. 스스로 영업도 해보면서 협업하는 단계를 많이 하려고 합니다. 다른 회사에 부서를 만들어드리는 세팅 작업도 해드리고 싶어요. 저희 자체가 마케팅을 할 수 있게 온전한 느낌으로 그 회사 직원처럼 일해주고 싶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초창기 마음가짐이기도 하고요. 마케팅부서를 우리 회사에 용역을 주거나 외주를맡기셨을 때 부서라는 느낌이 들 수 있게끔 해드리고 싶어요. 저희가 하는 건 큰 카테고리로는 청년에 대한 임무,일자리. 로컬 친구들에 대한 그런 요구. 일자리에 대한 요구를 채워나가는 것과 마케팅을 하면서 스스로 자생할수 있는 능력치를 키워나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한편으로는 도시재생. 그 영역에서 골목상권의 활성화를 위해서 지금 계속 전주시 도시재생센터와 함께 프로젝트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세 카테고리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¹⁸⁾ 니즈 : 생활자의 생리적, 신체적인 욕구란 뜻. 이를테면 공복을 채우고 추위를 막는 등의 단순한 욕구나 결합하여 있는 것을 채우고 싶다는 생각 욕구를 총칭한다. 「필요·필수품」등이 여기에 해당하며, 이것이 충만하게 되면 욕구 레벨도 원츠(wants)로 고도화해 간다.

¹⁹⁾ 워라벨 : '일과 삶의 균형'이라는 의미인 'Work-life balance'의 준말

²⁰⁾ 하드웨어: 원래는 쇠붙이라는 뜻인데, 컴퓨터의 중앙처리장치(CPU:central processing unit) ·기억장치(memory unit) ·입출력 장치와 같은 전자 ·기계장치의 몸체 그 자체를 가리킬 때 사용한다. 이에 대하여 컴퓨터를 활용하기 위한 각종 프로그램 체계(體 系)를 소프트웨어(software)라고 한다. 여기서 하드웨어는 체계에 대한 시스템으로 이해하면 된다.

장한결// 대표님께서 동문 거리에서 진행 중이신 프로젝트의 프로세스는 단계별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1단계는 소비자 담방 조사, 2단계는 (예비) 창업가들이 동문을 중심으로 모여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3단계는 동문 거리에서 실제로 창업을 하고, 입주하는 프로세스로 짜여 있는데, 소우주도 참여자로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때 제가 감명을 받았던 건 설문지조사를 하거나 소감문을 써야 하는데 그거를 취합하기 쉬운 상태로 설문조사를 대충하는 느낌이라기보다 자유로운 형태의 동영상으로 인터뷰 영상으로 남기고 그다음에 설문조사 지를 하는 이런 프로세스를 잡으시더라고요. 그러면 일하는 사람, 취합하는 사람으로서는 굉장히 고통스러울 수 있지만, 그런 하나하나의 과정에서 정성이 느껴져서 좋았습니다.

전주에는 매력적인 일자리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소우주를 창업하게 된 이유이기도 하지요. 저는 매력적인 사람이지만, 전주에 저를 담을 그릇은 없더라고요. 박하솜대표님은 본인 스스로 느끼고 생각한 것을 몸소 실천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좋은 선배님이라 생각합니다. 커넥트의 앞으로의 목표에 관한 이야기는 충분히 들은 것 같습니다. 그냥 박하솜이라고 하는 한 개인으로써 앞으로 어떤 목표를 가지고, 이 전주지역에서 어떻게 살고 싶으신지, 워라밸 말씀하시는데 과연 사생활이 있을까도 싶은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워킹맘이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지점에 관한 얘기를 좀 나눠주세요.

박하솜// 저는 사실 특이한 케이스라고 할 수 있는데 원래 쉬고 있는 걸 안 좋아해요. 머리가 노는 걸 안 좋아해서. 저한테 워라밸은 일을 열심히 하고, 내가 지금도 일하고 있구나 를 느끼는 게 워라밸이라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저희는 4시 반이면 퇴근을 해요. 그리고 아이들을 픽업하고, 4시 반부터 9시까지 육아를 열심히 하고 그 이후에 다시 깨어있다면 다시 일하는데, 충분히 저는 만족스럽고 행복해요. 지금 하는 일이 제가 추구하는 가치와 그리고 앞으로의 개인적으로 나아갈 방향을 잘 담아주고 있는 거라서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지금 상태는 매우 해피에요. 전주에서 이렇게 행복할 수 있구나. 이렇게 말해요. 그때 저 울었다고 했잖아요. 내려오면서. 지금 너무 행복하다느껴요. 제가 평안해야 하면 아이들도 행복하고 신랑도 행복하고. 워라밸 충분히 지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마케팅강의도 나가고 있어요. 컨설턴트의 길을 걷고 싶어서 많이 접하고 기회가 되면 하고 있어요. 회사는 사실 앞으로 쪼갤 생각이에요. 지금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상태인데, 계속 친구들한테도 얘기해요. 너희가 하고 싶은 일 찾아. 커넥트를 그만두고 하는 게 아니라 커넥트에서 일하면서 찾아. 그럼 창업시켜줄게. 월급은 나가되 따로 만들어보자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현재 영상회사와 사진회사와 기획회사로 쪼갤 계획을 얘기했고. 자회사처럼 운영이 되면서 다시 채용되고 퍼질 예정이에요. 회사에 기대고 있다기보다도 앞으로도 내가 전주에 진짜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어서 전주에서 남아도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알리고 싶어요.

- 장한결// 이번에는 여기 있는 선생님들 대학생 때부터 든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어떤 형태로든 계속 연이 있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소개해 드릴 분은 지원사업을 운영하셨는데, 스타트업이 발전해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중요한시기에 아주 핵심적인 인물로 열심히 일하셨던 김주미님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스스로 가진 센스를 활용해서 주어진 일 이상의 것도 뽑아낼 수 있는 사람. 디자인부터 마케팅에 대한 분석력이나 이런 그것까지도 굉장히 좋으시죠. 이력은 전북지역혁신리빙랩에서 일을 하셨습니다. 아마 리빙랩이라는 단어 익숙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좀 낯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리빙랩이 무엇이고, 전북지역혁신리빙랩은 무엇을 하는 곳이었는지, 소개와함께 지금은 전북대 문화인류학과 석사 재학 중이신데 또 어떤 연구를 앞으로 하고 싶으신지. 대학원 생활이 힘들진 않으신지 이런 이야기들 들어보겠습니다. 김주미님 소개하겠습니다.
- 김주미// 안녕하세요. 김주미라고 합니다. 지금 대학원 석사 중인데 바꿔말하면 백수라는 얘기고요. 백수인데 공부를 좀 더 한 학기 정도는 투자하려고 해서 지금 공부에만 집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전북지역혁신리빙랩하기 전에 지역혁신리빙랩에 갈 수 있었던 계기가 있었어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는데 생활한복 브랜드 리슬이라고 있어요. 그 회사가 막 성장해 나가던 시점에 제가 입사를 해서 그때도 사실은 입사할 생각이 없었고 한 3개월만 다닐 생각으로 들어갔다가 제가 브랜드매니저까지. 당시에 제 직함은 홍보계획팀장이었는데 지금 돌이켜보면 디자인 빼고 모든 업무를 다 했거든요. 예를 들어 포스터가 필요하면 포스터 만들고, 제품 촬영을 해야 하면 제품 촬영을 하고, 패션쇼를 해야 하면 스타일리스트를 하고, 제품 개발도 하고, 저는 소비자랑 가장 밀접하게 닿아있던

사람이었어요. 제품을 개발해야 하는 시점이 오면 그동안 취합된 소비자의 요구를 반영한 제품 개발을 해서 그 시즌에 가장 잘 팔리는 제품이 된다든지 그런 경험을 했어요. 퇴사를 고민하던 시점에 같이 있던 직원분하고 전 주대학교 문화산업연구소에 들어가서 전북지역혁신리빙랩이라는 프로젝트를 하게 됐어요. 리빙랩이라는 것은 쉽 게 말하면은 우리 삶 안에서 삶을 21)테스트배드로 놓고 연구를 하는 건데, 가장 쉽게 북유럽 예를 들어보자면 어떤 요양원에서 환자들한테 밥을 쉽게 주는 방법을 고민하다가, 짜서 먹을 수 있는 걸 개발을 한 거예요. 개발 하고 보니 또 다른 수혜자가 나온 거죠. 이 사람들을 보호하는 요양보호사가 일이 편해진 거예요. 떠먹이는 과정 이 줄어들고 영양 섭취는 흘리지 않으니 그대로 주고. 이런 사례들이 늘어나는 추세인데. 리빙랩이라는 거는 그 런 데만 국한되는 건 아니고 여러 방면에서 가능합니다. 제가 전북지역혁신리빙랩에서 했던 거는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지역 맞춤형 사업이라고 해서 창업을 지원해드리는 사업을 3년 정도 했어요. 창업하는 과정에서 실패하는 이유 대부분은 아무도 원하지 않는 것을 만들었기 때문이거든요. 보통 창업 실패하는 이유는 세상이 나를 몰라줬 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세상이 필요 없는 걸 만들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한 60팀 정도를 3년 동안 창 업을 하는데 도와드리면서 어떻게 하면 좀 더 성공할 수 있을까, 실패율을 줄일 수 있을까, 그리고 정말 필요한 제품을 만들 수 있을까 고민을 같이했던 3년을 보냈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대학원을 자연스럽게 문화인류학과 는 가게 됐는데, 문화인류학 과에서 하는 것 중의 하나가 현지 조사라는 방법론이 있어요. 결국은 현장 안에 들 어가서 고민해보고 그걸로 연구하는 일이 되다 보니까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변화들이 왜 일어나는지 근원적으 로 궁금해지더라고요. 지금은 고통받고 있죠. 어렵더라고요.

지금 만약에 저한테 직업을 묻는다고 한다면, 퍼실리테이터인 것 같아요. 장한결 선생님하고 같이 퍼실리테이터 그룹이 있어요. 이름 없는 그룹인데 모여서 학생들이나 기관에서 리빙랩 방법론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싶을 때 가서 같이 대화하는 형태로 끌어내는데, 보통 그러다 보니까 환경문제라든지 그런 문제를 저의 관심도 이상으로 접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환경문제에 관심이 좀 생기게 되더라고요. 지금은 저는 개인적으로 환경문제에 관심을 두고는 있지만,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사람은 아니고 지켜보고 있는 단계의 사람이에요. 왜 이렇게 변화가 되고 있지, 그래서 어떻게 하면 더 효과적으로 될까, 라는 걸 계속 좀 고민을 하고 있죠. 소개는 여기까지입니다.



왼쪽 장한결(소우주 공동대표) 김주미(전북대 문화인류학과 석사 재학 중)

²¹⁾ 테스트베드: 새로운 기술·제품·서비스의 성능 및 효과를 시험할 수 있는 환경 혹은 시스템, 설비를 말한다. 일종의 시뮬레이션 인프라로, 결과 예측이 정확하고 정밀할 수 있도록 실제와 유사한 환경을 구축한다. 이런 시험을 통해 실제 환경에서 발생 가능한 각종 문제점을 사전에 발견하여 조정할 수 있다. 시험 과정 없이 기술 및 제품을 시장에 출시하였을 경우 발생하는 위험 부담을 최소화하여 비용과 시간을 절감하는 효과를 얻는다.

2021 전주시새활용센터 다시봄 개관 주간행사 "Plan an Jeoniu upcycle 2021!"

- 장한결// 질문 드릴게요. 퍼실리테이터 활동하시면서 사실 퍼실리테이터한테 중요한 소양은 무엇이 있는지 한 개 정도 말씀해주시고, 힘들었던 사례들이나 아니면 인상 깊었다고 할 만한 사례가 있으면 소개해주세요.
- 김주미// 제가 봤을 때는 퍼실리테이터가 갖춰야 소양이나 힘든 것은 주제가 다른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는 것에요. 그런 분들은 목소리가 커요. 그런 분들을 자제시키는 것. 그래서 다시 이야기를 끌고 오는 것. 한사람한테 권력이 쏠리지 않게 하는 것. 언어의 권력이 쏠리지 않게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제 경험은 그래요. 보통은 그 사람이 우긴다고 해서 좋은 방법이 아니고, 거기에 동조한다고 해서 그게 진짜 동조하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런 게 좀 힘들었어요. 그래서 연령대가 다양하신 분들하고 하거나, 기관에 센터장분들, 어디 대표분들모아놓으면 혼란 상태입니다. 왜냐면 다 전문가다 보니까 우리가 같이 고민하자고 모인 자리에서 답을 내려요. 오늘은 이제 딴 얘기 하자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자제시키는 거가 제일 어렵고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 장한결// 주미님 말씀을 듣다 보니, 함께 퍼실리테이터 현장에 있을 때, 전북 지역의 기관장분들과 함께했던 때의 기억이 납니다. 저는 퍼실리테이터이고, 그분들은 참여자로 함께 하고 계셨는데, 저를 보시는 시선에서 "저 친구가무엇을 할 수는 있을까"하는 느낌을 받았었죠. 처음에 일단 기 싸움부터 해야 하는 상황이다 보니, 나는 누구이며, 여기서 뭘 하고 있나 하는 생각이 잠시 들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김주미// 기 싸움은 학생들하고도 해요

장한결// 네, 학생들하고도 하고 그러는 것 같아요. 무언가를 촉진하기 위해 존재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게 익숙지 않은 그룹 안에서 감각을 찾기 어려운 거 같아요. 오히려 토론을 하고, 논쟁하고, 부딪히거나, 선생님이 나서서 A라는 문제가 있는데 A라는 문제는 A-1으로 A-2로 해결이 되는, 이런 것들에만 익숙하다 보니 누군가 촉진 시켜주는 것을 어색해하는 분위기가 기억납니다.

선미촌 안에 있는 새활용센터, 더 크게는 전주의 새활용센터의 의미와 실천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누군가는 이 기관의 유휴공간에 입주할 것이고, 여기서 새활용이라는 주제로 작가들이 활동하고, 시민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인데, 이때 무엇을 고려해서 운영하면 잘 될 것 같은지 나눠보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청년들에게 새활용센터가 어떤 역할이 되어야 하는가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청년들에게 있어 새활용센터가 어떤 곳이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토론자분들 스스로 사업을 운영하는 청년으로서, 그리고 주변의 관련 분야의 일을 하시는 분들을 떠올리며, 해당 상황에 근거하여 말씀해주시면 기록으로 남겼을 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두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핵심적으로 말씀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처음 전주에 왔던 대학생 시절만 해도, 동기들이 너는 왜 서울에서 전주에 왔느냐 하는 질문을 많이 받았습니다. 당시 친구들은 서울로 가는 것이 성공한 것이고, 전주에 남아있다는 것은 패배자라는 인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대학을 졸업하면, 취업은 서울에서 해야 한다고 생각했었습니다. 현재 제 친구들은 모두 서울에 있습니다. 전주에 있는 저는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최근의 상황은 어떨까 알아보기 위해 통계치를 찾아보았습니다. 전주에서 자꾸 청년들이 유출된다고 하는데, 진짜 모두 떠나나? 그런데, 전주의 전입/전출 비율이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청년들은 왜 전주에 올까 살펴보니, 가장 큰 요인은 주택이었습니다. 사실 저도 그 이유로 전주에 남아있습니다. 토론자분들도 각자 전주에 남아있는 이유를 설명해주셨는데요. 전주는 영화 관련 인프라가 잘 구축된 편이라 지역 내 제작된 콘텐츠가 지역 내에서 소비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도킹텍의 노력이 있었고, 유형문화유산이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전주는 전통적인 콘텐츠가 있어서 썰지연구소의 활동이 시작될 수 있었습니다. 토론자분들이 전주에서 활동을 이어가면서 실질적으로 어려운 부분과 전주이기에 유리한 부분이 있을 것같습니다. 간단하게 무엇이 유리하고, 불리한지, 힘든 부분이 무엇인지 나눠주세요.

박하솜// 유리한 거는 여기서 나고 자라다 보니 여기의 생태를 잘 알고 있다라는 거에요. 마케팅이라는 것은 서울 마케팅하고 지역마케팅이 굉장히 달라요. 서울에 있는 마케팅 회사들이나 이런 큰 업체들이 로컬을 함부로 못 오는이유가, 여기 생태가 달라서 그래요. 예로 북 콘서트가 동문에서 있었는데 1회를 열었어요. 2명이 왔어요. 그래서 다시 홍보를 로컬 식으로 했어요. 그런데 서울에서 먹히질 않는 방법이지만 로컬에서 먹힐 수 있는 방법이었

죠. 80명이 왔어요. 그러니까 소비할 친구들은 분명히 있는데, 여기 생태대로 못 알려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유리한 건 제가 전주라는 지역에 생태를 잘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도 남아있을 이유가 있구나. 저는 용의 꼬리보다는 뱀의 머리를 되는 걸 행복해하기 때문에 그런 이유에 있어서는 마케팅업체면서 사회적기업이면서 여성기업은 전라북도에 저희밖에 없는 거 같습니다. 사회적기업이 4,000개 정도 되는데, 마케팅 타이틀을 달고 있는 곳은 저희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 유일성은 띠고 있는 거겠죠. 이런 것들에 대한 기대감. 그래서 머물게 됐습니다. 단점은 역시나 저도 문화생활 즐기는 사람이라서 못 즐기는 그것에 대해 안타까움이 있어요. 수시로 서울 왔다 갔다 하며 즐기고 있는데 역시나 지역회사라는 또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이라서 말씀해주신 거랑같아요. 그리고 뱀의 머리밖에 되지 않다는 시선이 있어요. 너네는 퀄리티가 이거밖에 되지 않겠지. 이런 시선들 그걸 물리치는 작업을 해야 하는 게 약간의 단점 같아요.

고현지// 전주에서 화장품 브랜드를 처음 시작할 때, 저도 처음에는 좀 두려움이 있었어요. 뷰티 브랜드가 전주에도 많이 있다고는 했지만, 실제로 제조업체를 입증하거나, CGMP 입증된 곳도 개수가 많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제품을 대량생산을 맡길 때 감당할 수 있을까, 가능하냐는 생각이 들었고, 제품을 생산하면서도 디자인 부분을 저희가 직접 현재 감당하고 있지만, 생산하는 작업에서 패키징 부분이 생각보다 다양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어려운 점이 있었죠. 이 외에 좋았던 점은 제가 사업을 시작하면서 네트워킹이 초반에는 좀 많이 문제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업을 준비하면서도 서울을 많이 왔다 갔다 했고, 현재도 서울에 많이 다녀오고는 있어요. 그런 부분은 해결되지만 전주 자체에서도 네트워크가 형성이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IT 창업클럽이나 아니면 다른 사업 분야의 네트워킹에서도 대표님들과 만나서 협업 등 제안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어요.

김주미// 일자리를 찾는다고 한다면 전주보다는 서울이 더 괜찮죠. 브랜드도 많고, 또는 창업하는 분들 지원해주는 관련한 일들도 훨씬 많고. 지역은 기관 차원에서 창업을 돕지만, 서울은 기관 차원이 아니라 사업체에서 창업을 돕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서울이 나은데, 제가 서울을 가지 않는 이유는 얼마 전에도 제안을 받았지만 가지 않은 이유는 딱 하나에요. 도시빈민으로 전략하고 싶지 않다는 것. 그런데 대학 졸업할 때도 이 마음이 작용했거든요. 제가 전공은 사학과여서 박물관에서 실습을 무조건 해야 하는데 하루에 만 원 줘요. 밥값도 안 되는 거죠. 밥값에다가 뭐 차비 한다고 해서 만 원 주는데 그렇게 몇 달을 해야 해요. 그러면 거기서 사는 동안 처지는 고시원생활이겠죠. 고시원에서 생활을 해본 적이 없었고, 고시원을 활용한 게스트하우스에서 한 번 자본 적이 있는데, 기분이 그렇게 썩 좋지 않았어요. 고시원은 꿈 없이는 못 사는 곳이에요. 그거라도 붙잡고 살아야 하는 곳. 그러니까 도시빈민으로 전략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컸어요. 장한결 선생님이 평수를 포기 못 하는 것처럼 저는 월세를 포기 못 하는 거죠. 내가 한 달에 지출해야 되는 비용이나 환경 등.

제가 창업지원을 도와드린 측면에서 봤을 때 전주의 매력은 대부분이 온라인으로 판매로 이루어져요. 온라인이라는 거는 어디에 있는 상관이 없거든요. 전주 시내에 있을 필요도 없고 외곽에서 물류센터 자리하나, 사무실 들어갈 자리만 있으면 어디든 할 수 있으니까요. 주변에서도 다시 원래 자기 지역으로 들어가느냐, 창업을 유지하느냐 고민하는 분들한테 해주는 얘기는. 월세를 비교해보는 거죠. 어디가 더 나은가. 어차피 서울을 왔다 갔다 해야하는 거는 창업하실 때 어쩔 수 없는 일이고, 인재는 거기에 몰려있고, 공장도 몰려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고. 그렇다면 전주가 좀 더 매력적이지 않냐. 그리고 KTX로 서울까지 가깝게 다닐 수 있고. 타지에서 전주 와서 사시는 분들이 전주 못 떠나는 이유 중의 하나는 유유자적한 분위기도 작용을 한다고 보거든요. 전주의 장점은 그런 것 같아요. 단점은 얘기하자면 임금과 복지 문제가 커요. 여기 남기로 했지만, 도시빈민이 되지 않은 대신에 누군 가의 노예가 되는 상황을 선택을 해야 한다는 거. 그걸 개선해야 할듯합니다. 전주에 계신 기관에 있는 분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그걸 대해야 하는데 전주 220도시 생활 임금하고 최저임금하고 달라요. 도시생활임금이 조금 더 높아요. 그거를 맞춰서 주는 회사가 없어요. 도시 생활임금이 있는지도 모르죠. 사업주들은 보통 복지를 낮게 보는 거죠. 법적으로 노동자가 1년에 딱 하루밖에 없어요. 5월 1일 근로자의 날. 공휴일은 공무원이 쉬는 날이지 일반인이 쉬는 날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노무사가 그걸 알려줘요. 사업자에게. 연차를 묶으면 휴가를 조금 줄 수 있다

²²⁾ 생활임금 : 임금 노동자의 실질적 생활이 가능하도록 법정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적으로 규정한 제도로 최저선의 생계비인 최저임금을 넘어서는 개념이다. 즉, 근로자들의 주거비, 교육비, 문화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을 정도의 임금수준으로 노동자의 생계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정책적 대안이다.

고 노무사가 권장하죠. 그걸 악용하는 경우가 아주 많아요. 우리는 어릴 때부터 공휴일을 쉬는 날이라고 배워왔는데, 돈을 벌기 시작하니까 공휴일이 쉬는 날이 아니었던 것에요. 그러니 그런 괴리가 너무 크고. 회사는 잘되는데 내 삶은 잘 되지 못하는 결국은 그만두게 되는 거죠. 여전히 그런 부분은 남아있다고 봐요. 그래서 어떤 기관에서는 복지를 지원해주는 사업을 하기도 해요. 신입사원 생일날 생일파티를 해주게 한다든지, 한 달 동안 열심히 다닌 직원에게 양복을 선물해 준다든지. 서울이나 다른 지역도 하는 건데 전주가 못 따라가니까 지원을 받아서 하는 거죠. 그러나 지원을 끊기면 안 하는 거죠. 그런 점에서 전주는 살기 힘들다고 생각해요. 직장인으로 살기에는요.

- 장한결// 이제 청년들에게 새활용센터의 역할은 무엇인가에 대한 내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토론자분들께서 하는 활동들은 새활용센터와 직접적으로 만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간접적으로나마 이어질 수 있는 접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토론자분들 모두 지원사업에 대한 경험이 있는데, 앞으로 새활용센터에서 시민이나 제작자들을 위한 지원이 있을 텐데, 그런 부분에서 어떤 지원과 도움이 있으면 좋을지 말씀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새활용의 가치는 무엇이며, 이것이 토론자분들의 활동과 만날 수 있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해주세요.
- 고현지// 저는 화장품 사업을 하고 있지만, 화장품 브랜드에서 저희가 말씀드렸듯이 리필스테이션으로 나가고 있어요. 리필스테이션을 하시는 분들을 보면 다양하게 제품을 사용하고 나서 다시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해서 씻어 다시 사용하시는 분도 계시고, 사출하여 치약짜개나 새롭게 만들어서 리싸이클 제품을 만들어서 판매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분들에게 어떻게 하는지 여쭤봤는데, 여기 새활용센터랑 연결이 돼있더라고요. 새활용센터에서 플라스틱 사출기가 있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그걸 활용해서 소비자분들이 사용한 플라스틱 뚜껑이나 플라스틱 라벨지 등을 모아서 새롭게 제품을 만드는 것을 현재 하고 계시더라고요. 전주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활성화되면 제품에 대한 부가가치가 높아질 것 같고 새롭게 탈바꿈하는 부분에서 제로웨이스트샵에서 하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새로운 분들도 배우고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전주에서 도입하면 재미있는 작업이 될 거로 생각합니다.
- 설지회// 전주에는 무형문화재 분들이나 공예가분들이 적지 않은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분들을 거론하는 이유는 제조 업 쪽은 재료가 남을 수밖에 없어요. 천을 자르더라도 자투리 천이 남고, 특히 전주하면 합죽선이 유명하죠. 아주 많은 대나무가 버려져요. 합죽선의 가장 큰 기술의 가치는 굉장히 얇게 대나무를 쪼개서 이 죽을 합친다고 해서 합죽선인 건데. 굉장히 얇게 다듬는 과정에 많은 대나무가 쓸 수 없는 재료가 돼요. 전라도가 죽공예가 유명하므로 많은 대나무 공예품이 만들어지는 만큼 대나무가 많이 못 쓰는 상황이고, 천도 있을 것이고 한지도 자투리가 나올 것 같아요. 저는 공예가나 무형문화재 선생님들이 쓰지 못하는 이런 천연재료들을 여기 새활용센터에서 함께 새롭게 탄생하는 방안을 여기 계신 분들이 같이 재미난 게 탄생하면 그게 전주라는 23)로컬리티에 부합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제가 지금 우산장 선생님이랑 기획하고 있는 것 중에 미니 우산키트를 지금 만들고 있어요. 꼭지 두 개가 우산에 들어가는데요. 펼칠 때 살이 모여야 하잖아요. 살이 두 개로 모이는데 그걸 모아주는 꼭지가 위에 하나 아래하나 들어갑니다. 그럼 맨 위에 있는 꼭지는 우산의 천, 지금은 천이지만 옛날 우산은 한지를 쓰니까 한지를 하면 위에 꼭지는 안 보여요. 접히니까. 그래서 미니 우산일 때는 선생님이랑 동의한 게 사출기로 위에 꼭지는 나무로만들지 말고 플라스틱 사출해서 틀을 만들어서 위에는 가려지니까 그걸 해보면 어떻겠냐는 얘기도 지금 하고 있어요. 다행히 사출하는 곳이 서울에만 있는 줄 알았는데 여기에 있다길래. 여기서 하면 공예품과 제로웨이스트의취지랑 굉장히 잘 부합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전주에서 전통이 가지는 기존의 이미지를 더 활용해서 가치라는 것을 증폭시키는 역할을 이곳에서 해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박하솜// 저는 청년들 미션도 있는데, 경력단절 여성들에 대한 미션도 가지고 있어요.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만나는 과정

²³⁾ locality : (현재 얘기되고 있거나 있는 장소의) 인근 (=vicinity)이라는 용어이나 현재 일본이나 한국에서는 로컬리티의 용어를 장소성 즉 지역이 가진 고유의 색을 발견하고, 더 깊은 이해와 접근으로 지역만의 이야기를 발굴해 서로 엮고 새로이 묶어내고자 하는 현지화의 표현. 단순한 장소성을 넘어서 자연, 사람, 역사가 합쳐지는 지역을 설명할 때 쓰인다.

중에 여러 가지 지원사업들이 맞물려서 패션지원사업도 있고, 사회혁신센터 사업에서도 있는 커뮤니티에 제안했어요. 우리가 지금 고민하는 문제를 자비로 처음 시작하기 부담스러우면 곁들여서 해보자. 주제가 아기 옷들이딱 1년 정도 그 시즌만 입히면 그다음에는 못 입히거든요. 버려지는 거죠. 왜냐면 옷값이 많이 싸기 때문에 새로사 입히거든요. 그대로 버려지거나, 당근에서 거래가 되고 있지만. 내가 내 자식 기르는데 헌 옷을 굳이 입히려하지 않죠. 그래서 엄마들에게 아기 옷을 리폼을 하고 렌탈하는 서비스로 한 번 해보자 생각했어요. 옷을 모아서리폼을 해서 파는 게 아니라 렌탈을 하는 거예요. 입히고 돌려주시고 버려지는 것들에 대한 패션 산업계가 산소배출량이 전체 산업에 10% 정도를 차지하는 큰 비중인데, 큰 대기업들도 노력하고 있지만 작은 단위로는 노력을 해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런 생각을 하는 모임이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많을 텐데 새활용 센터가있다고 하니 여기서 그런 생각을 하는 커뮤니티들을 모아줄 수 있는 어떤 장을 열어주시면 서로 커뮤니티 형성되고 시너지를 입을 수 있는 장을 마련해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한 번 했어요.

- 김주미// 발제문 처음 받았을 때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 고민했어요. 저는 여기가 *지역에 있는 신인 크리에이터, 창업에 정자 혹은 창업가들이 시민들의 불편이 여기에 모이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 불편이 아까 말씀하신 합죽선 때문에 나오는 대나무가 결국 불편한 거잖아요. 그것을 어떻게 크리에이터가 작업을 할건지, 창업자는 어떻게 그 걸 가지고 새로운 제품을 만들 건지. 결국은 여기 원 소스가 모이는 자리가 돼서 그걸 가지고 새로운 사례들이 나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 김형준// 거의 비슷한 생각이신 것 같아요. 커뮤니티 센터처럼 돼야 새활용을 한 거 저희가 모인 것처럼 마케팅을 할 수 있고 홍보를 할 수 있고 그런 거잖아요. 그리고 새활용센터 자체가 ²⁴⁾크리에이터랑 ²⁵⁾퍼실리테이터도 모여 있으시니까 함께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장소가 돼야지만 활용이 높아진다고 생각합니다.
- 장한결// 토론자분들이 말씀해주신 내용이 다른 지역의 새활용센터와 다른 전주 새활용센터만의 차이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똑같은 소재 은행을 운영한다고 하더라도, 전주 새활용센터에서는 설지희 대표님이 말씀하신 유무형 문화유산에서 버려지는 재료들을 만날 수 있는 특수성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재료들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찾아 나가는 워크숍 등 재밌는 일들이 발생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청년, 경력단절 여성 등 새활용센터가 하나의 장이 되어야 한다는 부분에서 말씀해주신 토론자분들의 의견에 공감합니다.

저는 제로웨이스트샵을 운영하면서, 제가 소비자의 관점에서 실천하며 지낼 때보다 환경에 대해서 더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소재의 본질에 대한 것을 말이죠. 플라스틱이라는 소재가 가진 단단함, 견고함, 완벽함, 편리함. 그런 인식이 뿌리박혀있기 때문에 사용하면서 발생하는 폐해들이 있습니다. 새활용센터에서 새활용이라는 것의 인식을 바꿔볼 수 있는 다양한 실험들이 일어난다면, 너무 당연하게 소비되었던 것들에 대한 변화가 생길수 있지 않을까요. 소우주에서 만나는 고객분들이나 강연 의뢰를 해주시는 기관에서 늘 먼저 말씀하시는 것이 체험할 것이 없느냐는 겁니다. 체험해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물어보면 사람들이 가져가는 것을 좋아한다는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런 게 정말 사람들이 바라는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됩니다. 제로웨이스트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들이 다양한데, 왜 체험을 통해 사람 손에 들려보내야 하는 것인지 고민이 듭니다. 그래서 제로의 예술(@zero makeszero)라는 예술가, 기술자분들이 제로웨이스트 테마를 가지고 예술계에서 무엇

²⁴⁾ 크리에이터: 오늘날에는 일반적인 '창작자'라는 표현보다는 온라인 플랫폼에 올리는 콘텐츠를 제작하는 '크리에이터'라는 표현이 더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특히 유튜브(YouTube)에서 동영상을 생산하고 업로드하는 이를 지칭하는 말로, 크리에이터가 무엇을 창작하는가에 따라 앞에 수식어를 붙인다. 게임 크리에이터, 먹방 크리에이터, 뷰티 크리에이터, 여행 크리에이터, 홈트(홈트레이닝) 크리에이터 등 다양한 분야 및 소재가 크리에이터의 아이템이 되고 있다.

²⁵⁾ 퍼실리테이터: 개인이나 집단의 문제해결능력을 키워주고 조절함으로써 조직체의 문제와 비전에 대한 자신의 해결책을 개인이나 집단으로 하여금 개발하도록 자극하고 돕거나, 교육훈련프로그램의 실행과정에서 중재 및 조정역할을 담당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퍼실리테이터는 팀 구성원들에게 질문을 던지고, 팀 구성원들의 생각에 맞서며, 한편으로는 독려한다. 팀이 그들 자신의 행동에 대해 더 잘 알도록 해 주는 것이 퍼실리테이터의 역할이다. 퍼실리테이터의 목적은 궁극적으로 학습을 가속화시키는 것으로 팀이 취하는 다양한 행동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하고 성찰을 고무하며 학습자들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에 대해 성찰하고 학습을 촉진하는데 도움을 준다.

을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을지를 만들어나가고 있는 계정을 보고 영감을 받았습니다. 예술 활동에서 전시하는 과정에서도 어마어마한 쓰레기가 나오며, 회화작업을 위한 붓, 캔버스, 물감까지 그 재료가 무엇으로 만들어지는지들어가 보면 노크루얼티(no cruelty), 비건(vegan)을 지향하는 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재료가 거의 없다고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제로웨이스트 가치에 맞는 새로운 재료에 대한 요청을 관련 회사들에 지속해서 요구함으로써 변화를 만들어나가는 움직임이 결국 필요할거라고 생각합니다. 좀 더 열심히 각자의 상황에서 제로웨이스트라고하는 가치실현을 위해 생각의 폭을 넓힐 수 있는 관점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토론자분들은 이곳이 선미촌이고, 새활용센터 건물도 한때 업소였던 공간이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지고 계신 생각을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새활용센터 공간이 어떻게 사용되고, 어떻게 전환되고, 어떻게 표현되었으면 좋겠는지 아이디어를 나눠주세요.



현재 소우주 팝업스토어를 진행 중인 노송늬우스박물관도 업소였던 공간입니다. 미신적인 이야기일 수 있지만, 저는 그 공간에 있으면 기가 눌린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공간은 팝업스토어가 운영되는 1층과 작품이 전시된 2층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2층 공간은 실질적인 성매매 행위가 이루어지던 방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서 얼마나 많은 행위와 거래들이 많이 펼쳐졌을까, 인간이 도구화되어버리는 이런 것들이 보이지 않는 이야기로 저에게 전달되어 오는 것일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개개인들의 업(카르마)이 아니라 공간이라는 것이 가진 업도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도시재생은 공간에 남아있는 아픈 부분들을 쓸어버리고, 새로운 것을 올려버린다는 느낌이 듭니다. 어쨌든 누군가의 노력으로 가치가 있고, 재미있고, 올만한 곳이 되어버리면 젠트리피케이션이 발생하곤 하죠. 노송늬우스박물관에 있다 보면 부동산을 알아보러 다니시는 분들을 종종 뵙습니다. 여기가 전주시 건물인지 따로 주인이 있는 건물인지 궁금해하시죠.

제 개인적으로 새활용센터는 업소건물이었다는 것, 이 시대가 성평등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 안에서 페미니즘을 간과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주변에 성평등전주, 전북여성인권센터 등 다른 기관들이 있기는 하지만, 제로웨이스트나 업사이클링 등 새활용의 관점에서 페미니즘에 대해 충분히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고 생각해요. 업소가 문을 닫아서 업소에서 일하던 분들은 선미촌을 떠나게 되면, 다른 지역 업소에서 일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많지는 않지만, 여기에 남아서 업종전환을 하고 싶어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건 용기가 있어야 하는 일 입니다. 길에서 자신을 구매한 고객을 만날 수도 있는 상황이고, 업소에서 일한 아가씨라는 인식이 있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있던 곳에서 다시 터전을 잡고 새로운 걸 시작한다는 것은 스스로에 대한 새활용이라고 생

각을 하거든요. 이를 위한 엄청난 지지와 연대가 있지 않으면 한 개인의 삶을 전환한다는 것이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새활용센터 직원분들이 이런 주제에 대한 것을 고려할 수 있는 감수성이 있다면 남다른 차원에서 새활용센터의 기능이라는 것을 발견할지도 모르고, 이것이 다른 기관, 지역에서 참고할만한 사례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단순히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토론자분들께서 더 이야기를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하솜// 덧붙이자면 생각하지 못했던 관점이기는 한데, 여기 차를 약간 멀리 대고 걸어오는 동안에 여기 새활용센터의 느낌이 뭐랄까. 이상했어요. 그래서 공간, 이 터라고 말씀하신 주변 환경 인프라가 줄 수 있는 공간에 대한 느낌이 아주 크구나. 그래서 이 건물이 저기 신시가지에 있었을 때와 여기 있었을 때 느낌이 다르니까 어쩌면 지역적인 차원에서 이 공간을 쓰고 있는 옆에 있는 공간들과 뭔가 협업이라든지 함께할 수 있는 거리가 생기면 좋겠다사회자님의 얘기를 공감해요.

설지회// 저는 몇 가지 들으면서 떠올렸던 키워드는 우선 확실히 원주민. 도시재생에서 가장 좋은 결과는 원주민들이 도시재생을 통해서 자부심을 품는 거라고 저는 정의를 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원주민분들이 어떻게 하면 자부심을 가질 수 있을까 하는 거를 고민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있고요. 최근에 ²⁶⁾로컬크리에이터. 제가 최근에 양양서핑 비치에 박준규 대표님 만났는데, 박준규 대표님이 얘기하는 게 로컬에서 뭔가 가능성을 찾으려면 내가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보다는 결핍을 찾아라. 그리고 그걸 해결해주라는 얘기를 했어요. 되게 쉬우면서도 어려운 이야기 같아요. 여기에 있는 원주민들이 스스로 인지는 하지 못하지만 어딘가에 있는 그 결핍은 무엇일까 하는 고민도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있어요. 자부심에 관한 관련된 사례로는 부산 영도에 흰여울문화마을이라는 곳이 있어요. 가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거기는 부산 자체가 한국전쟁의 역사가 진한 곳이고 영도라는 곳은 피난민들의 밀집 장소에요. 영화 국제시장을 보셨으면 내려오신 분 중에서도 거의 아무 인맥도 없는 분들이 가는 데가 영도에 절벽 같은 곳에 마을을 지었다고 하더라고요. 건물을 지을 수 없는 컨디션이니까 아무도 안 짓는 곳에다가 집들을 지은 곳이 지금은 해안가의 절경을 가졌다고 관광객들이 쏟아지는 흰여울문화마을이 됐는데요. 그분들은 자신의 직업을 부끄러워하세요. 노동을 하셨던 분들이고 뱃일하셨던 분들이셔서. 그런데 주변에서 관광객들이 너무 예뻐요. 이런데 사셔서 부러워요. 이러면 뿌듯해하세요. 나 이런 집에 살아. 그런데 그 집 컨디션이 바뀐 건아니거든요. 지금은 관광객들이 과한 게 있어서 힘들어하시긴 하지만 그런 자부심을 주는 방법.

그리고 두 번째 사례를 얘기하자면 제주도에 탑동이라는 곳이 있어요. 탑동이 제주시 쪽에 있는 곳인데 거기는 블랙머니가 강했던 곳으로, 과거에 정권 때 강제로 매립을 심하게 해버렸어요. 카지노랑 호텔 짓는다고. 그래서 거기 탑동에 해녀분들이 많이 사시고 초가집에 옛날 동네였는데. 무작위로 밀어버리고 지금 커다란 이마트, 호텔, 카지노가 아직도 있는데. 거기는 원주민과 매립 이후에 들어온 주민과 여전히 소통이 없어요. 단절되어있죠. 누가 어디에 사는지 관심도 없고, 궁금해하지도 않고. 그랬을 때 그때 그런 현지 조사 같은 거 하다가 저희 팀이 어떤 모텔에 할머니가 해녀의 대빵 할멈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직도 탑동 해녀가 계시다니.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아이디어로 이 공간을 그대로 살려서 어렸을 때 여기서 물질했던 탑동 할머니의 이야기를 담을 공간을 만들면 너무 좋겠다. 할머니들에 해녀 레시피도 맛볼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으면 좋겠다 발표했었는데 우시더라고요. 그게 결핍이었던 거예요. 여기 탑동에서 지금 가도 전혀 느낄 수 없는 옛날 해녀들의 이야기. 그런 게 조금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그리고 그게 모두가 뿌듯한 게 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맥락으로 문화라는 것, 예술의 가치가 무엇인가? 생각할 때 기록의 가치라 생각을 하거든요. 다시 기억을 할 수 있는 것. 그걸 어떻게 어떤 효과를 줄지는 당장에 나타나지 않아요. 예술이라는 건. 나중에 누군가의 나비효과처럼 여파가 들어오는 건데. 여기는 일단 기록이 있잖아요. 이야기가 맥락이 이어가고 있는 궤적으로써 그런 아트워크들이 일어나는 원주민들이 봤을 때 불편해하지 않는 그런 어떤 아트워크가 일어나도 충분히 설득력 있는 공간이 되지 않을까. 이 정도의 파편이 생각났습니다.

²⁶⁾ 로컬크리에이터 : 역을 뜻하는 로컬(local)과 콘텐츠 제작하는 사람을 뜻하는 크리에이터(Creator) 합성어. 지역 문화, 관광 및 자원을 기반으로 비즈니스모델을 접목해 지역 문제를 해결하고 '가치'를 만들어내는 창업가를 말한다.

2021 전주시새활용센터 다시봄 개관 주간행사 "Plan an Jeonju upcycle 2021!"

장한결// 추가로 간단히 나누기를 해주셔도 좋으니까 해주실 분 있을까요?

김형준// 저는 예전에 촬영차 왔었고, 예전에 정말 활성화 돼 있었을 때 촬영을 한 적이 있었어요. 영화 촬영. 포주분들이 엄청 난리를 치시죠. 영화 촬영팀 들어오시면 난리를 치세요. 다시 전주에서 뭘 해보겠다고 왔을 때 원래 남부시장이 아니라 여기였어요. 문화 활동을 해서 생각을 좀 바꿔줘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어요. 전주문화재단이가진 공간이 있어서 여러 군데 들어가 봤거든요. 공간을 좀 활용하고 싶어서. 문화 활동을 하면 바뀌지 않을까 싶었죠. 영화제도 여기서 해보고 싶어서 왔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야기를 담아놓은 공간으로 살려놓고 문화 활동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되게 강했었거든요. 새활용센터도 현장지원센터가 이 건물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처음 제가 왔을 때 왜 왔냐고 했었어요. 문화 활동을 하겠다고 갔는데, 제가 여기서 영화를 상영해보고 싶다. 밤에 해보고 싶다. 저기를 원하는 고객들하고 우리 문화 활동을 하는 고객들을 비교해보겠다.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욕먹어도 내가 해보겠다. 영화 촬영하면서 욕을 많이 먹어봐서 해볼 수 있겠다 생각을 했죠. 공간을 빌려주면 그 안에서 현장이 이루어졌던 곳에서 페미니즘에 관한 영화들을 틀어주겠다. 더 직접적으로 느껴지지 않겠냐, 문화 활동을 하면. 제 생각으로는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것보다 있는 것들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사람들이 참여해서 느낄 수 있는 공간이 되어 있었으면 좋겠어요.

설지희// 피드백이 어땠어요?

김형준// 처음에는 하겠다고 하셨는데, 포주분들이 현장 지원센터에 와서 항의하셨대요. 저런 애들이 와서 활동한다는데 왜 저걸 하게 놔두냐고. 공원이 하나 만들어졌을 거예요. 거기서 야외상영하겠다고 했어요. 내가 싸워서 내 돈들여서 야외상영하겠다. 밤에. 왜 안 되느냐. 그래서 ²⁷⁾LGBT 영화도 틀어보고, 신경을 쓰지 말라 그랬더니 싸움이 난다고 하지 말라고 해서 못하긴 했어요. 그래서 남부시장으로 가게 된 건데 거기서 처음 한 영화가 그래서 LGBT 영화제였어요. 그래서 저기 여성분들에 관해 얘기를 하겠다. 여기가 대상이었어요. 이분들이 와서 보셨으면 좋겠다. 주민들이 보셨으면 좋겠다. 그런 것들을 남겨놔야 오히려 직접적으로 오신 분들이 더 느끼고 어떤 스토리로 되고 어떻게 새활용되는지 더 느낄 수도 있을 공간이라고 생각해서 다 밀어버리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더 남겨놔서 더 느낄 수 있게끔 하는 게 자극이 될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으니까요.



²⁷⁾ LGBT : 레즈비언(lesbian)과 게이(gay), 양성애자(bisexual), 트랜스젠더(transgender)의 앞 글자를 딴 것으로 성적소수자를 의미한다. 점차 동성결혼 인정 등 성적소수자에 대한 사회적 통념이 변화되면서, LGBT들을 겨냥한 다양한 상품들이 출시됨에 따라이들의 구매력이 주목받은 바 있다. 한편, LGBT를 대상으로 한 금융상품을 가리켜 핑크머니(pink money, 동성애자의 구매력을 뜻하는 용어)라고 한다.

김주미// 전 여기를 2008년에 택시를 타고 지나갔거든요. 그리고 오늘 택시를 타고 왔어요. 여기가 진짜 일상성이란게 엄청나게 회복됐다. 2008년에 지나갈 때 여기는 그야말로 홍등가였는데, 지금은 홍등가가 아닌 거죠. 일상성을 회복했다는 것 자체가 엄청나게 놀라운 변화고.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서 젠트리피케이션이 일어나도 좋다고 생각 을해요. 그래야 완전히 근절됐다는 얘기니까. 어쨌든 그 젠트리피케이션이 일어난다는 자체는 그 앞에 뭐가 새로 우 변화가 있을 거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그런 일이 또 가슴 아픈 일이 되겠지만. 그렇게 쉽게 될 것 같진 않고. 요즘 젠트리피케이션이 막 일어나진 않으니까. 특히 코로나 이후로는. 그냥 여기가 이렇게 회복한 일 상성을 잃지 않기 위해서 여기에 어떤 콘텐츠가 들어올 건지에 대해 서로 좀 관심을 가지고 연대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저희가 창업지원 해드린 곳 중의 하나가 물결서사에요. 물결서사가 처음에 저희한테 지원받 을 때 어떤 프로젝트를 했냐면, 리본프로젝트라고 해서 여성 인권과 관련된 전시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물결 서사 오픈하고 나서 굿즈 만드는 거를 지원을 받으셨어요. 물결서사 때문에 여기 찾아오시는 분들도 많고, 여행 으로 왔다가, 한옥마을 왔다가, 물결서사가 책이 여기에 누군가 발걸음을 끌어주고 문화적인 거를 채워주고 있잖 아요. 여기 보면 빌딩 숲이어서 직장인들 아주 많은데. 성평등전주에 있는 카페에 가보면 점심시간에 사람들이 엄청나게 몰려요. 커피 사서 먹으려고 거기밖에 없는 거죠. 여기는 카페가 더 들어와도 좋고, 어쨌든 이 일상성 은 지키고 뭔가 서로가 연대할 수만 있다면 여기는 꽤 좋은 곳이 될 거고. 그러한 중심지에 새활용센터도 들어가 야 되고 성평등전주도 있어야 하고, 또 박물관도 들어오잖아요. 그러한 것들이 거점으로 사람들을 끈끈히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장한결// 기관과 기관이 사이가 좋아야 한다. 같이. 어깨동무, 내 동무하고.

김주미// 한가지 가치만 지키려고 한다면 좋을 것 같아요.

장한결// 어떤 가치죠?

김주미// 이곳에 새로 들어온 사람들을 들어올 때 어떤 각오하고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 마음이 힘들 때 잡아줄 수 있는 그런 연대를 해줘야 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사업이라는 게 다들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불안과 함께하는 거잖아요. 언제 망할지도 모르고 갑자기 어떤 일이 터지면 여파가 크잖아요. 소상공인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럴 때 의지가 될 수 있는 기관과 기관들이 전부 옆에서 서로 북돋아 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장한결// 제 각각이 너무 큰 역할을 맡기보다 스스로가 힘들 때 새활용센터에서 일하시는 직원분들이 힘들 때 인간 대인간으로 받아들여서 함께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김주미// 경쟁의식을 좀 버릴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고현지// 저는 전주에 온 지 오래되지 않아서 선미촌이 있다는 사실도 소우주 대표님 때문에 알게 됐어요. 선미촌에 대해서 검색을 해보니까. 예전 기사들도 아주 많았고, 여기가 어떤 곳인지를 그제야 알게 된 거죠. 전주 자체에서는 제가 알고 있던 곳이 한옥마을하고 효자동, 신시가지랑 이외에 평화동 쪽, 이쪽만 자세하게 알고 있었는데. 이쪽에 이런 공간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오늘 오면서 굉장히 많이 느꼈습니다. 아까 말씀해주셨던 것처럼 되게이상한 그런 부분도 있었고. 그러면서 새활용센터가 여기 어떤 걸 변화시키지 않고 자체의 문제점을 새롭게 사람들에게 알리면, 성평등의 가치를 알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설지희//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까 민족지적²⁸⁾ 연구가 사실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사실 여기가 그

²⁸⁾ 민족지적: 관·명 사회 일반 여러 민족의 생활 양식 전반에 관한 내용을, 해당 자료를 수집하여 체계적으로 기술하려고 하는. 또 는 그런 것.

2021 전주시새활용센터 다시봄 개관 주간행사 "Plan an Jeonju upcycle 2021!"

런 여성이 있어서 페미니즘의 어떤 프로젝트를 하는 것도 좋지만, 재밌게 그분들에게 신청한 곡을 받아서 크게 뮤직 페스티벌처럼 틀어준다던가, 그분들도 소소하게 불편하지 않게 즐길 수 있는 것을 조금씩 작게라도 하는 것도 의미 있는. 크게 트러블도 없이 포주들이 그거 가지고 뭐라고 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김형준// 뭐라 합니다. 저희가 해봤습니다.

설지희// 음악 틀어도 뭐라 해요?

- 김형준// 여기가 워낙 유명한 공간이잖아요. 영화 배경이 됐던 나쁜 남자라는 영화 배경이 됐던 100만 명이 아는 공간일 거예요. 그 영화 100만 명이 봤으니까. 새로운 스토리텔링을 하려고 그러면. 바꿔서 포주들. 그니까 다 만나봤거든요.
- 장한결// 일단 오늘 시간 끝내야 할 것 같아요. 사실 우리끼리 모여있으면 여기 있는 임직원분들까지 이야기하면 날 밤 새워서 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우선 팀장님 이야기 들어볼게요.
- 정수경// 이야기 들으면서 다양한 생각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하고 수다 모임을 만들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다양한 얘기들을 같이 나눌 수 있는 자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한테도 좋은 얘기들 많이 해주셨고. 같이할 수 있는 건 도움 받을 거나 손잡고 같이 갈 수 있는 거, 같이 싸워야 하는 상황들도 생길 것 같고, 창업지원이나 마케팅도 함께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자주 소통하면서 지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어깨가 무겁기도 했어요. 새활용 자체도 어려운데, 이 지역에 대한 공간, 연대. 같이 해야 하는 거. 저희도 항상 인지는 하지만 어느 정도 밀리기도 하고, 바쁘다 보면요. 그 부분 잊지 않고 꼭같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같이 싸워주실 분들을 만났구나! 생각이 듭니다. 전주만의 새활용센터가 선미촌에 있으면서 또 다른 우리만의 공간이 될 수 있는 곳에 여러분들이 같이 있어서 새로운 일을 해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장한결// 다른 방식으로도 좋고 또 만납시다. 참여해주신 토론자분들 감사드립니다.

<발제문 첨부>

전주에서 사회적 가치로 먹고살기

발제_ 장한결

1) 공유하기

전주에서 사회적 가치로 먹고살기 첫 발걸음을 뗀 소우주의 공동대표 장한결입니다. 먼저, 전주시새활용센터 '다시봄'의 개관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뜻깊은 자리의 진행을 맡게 되어 영광입니다. 저는 오늘전주에서 사회적 가치를 담은 혁신 활동 및 비즈니스를 펼치고 계신 다섯 분의 패널과 함께합니다.

- 일상의 문화유산을 전하는 썰지연구소장 설지희님
- #민감성뷰티 #클린뷰티 #동물실험반대 #제로웨이스트 Farm&Co 브랜드 포레세 대표 고현지님
- Docking(만나다)+Cinematheque(시네마떼끄)의 합성어로 영화를 만드는 청년들이 운명처럼 만나 함께 만든 문화콘 텐츠제작협동조합 도킹텍프로젝트 협동조합 이사장 김형준님
- 마케팅부서를 판매합니다. ㈜커넥트 대표 박하솜님
- 소비자의 삶에서 발견하는 창업 (前)전북지역혁신리빙랩 매니저/전북대 문화인류학과 석사 재학 김주미님

라운드테이블의 테마인 "전주에서 사회적 가치로 먹고살기"에서 이야기하는 사회적 가치는 UN의 지속 가능발전목표에 따릅니다. 왜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를 이야기해야 할까요? 비즈니스에서 사회적 가치를 가져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UN 지속가능발전목표>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지금까지 누려오던 일상이 멈추면서,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성찰해보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또한 생산-소비-폐기에서 발생하는 환경문제, 특히 플라스틱 문제가 극대화되면서 일회용과 소비의 삶에서 제로웨이스트의 삶으로 전환을 하려는 움직임이 크게 발생하였습 니다. 개개인의 순간적 편리함이 모여 인간을 포함한 모든 종과 생태계에 큰 재앙이 된다면, 기꺼이 불편 함을 감수하며, 대안적인 삶을 찾아 나서겠다는 소비자가 늘어났습니다.

20201년, 가치 소비의 시대가 도래하였습니다. 기존 패러다임의 비즈니스를 영위하던 사업체도 환경 보호, 동물의 생명권, 생태계의 보전을 해치지 않으면서 동시에 최대한 잘 지킬 수 있는 방향으로 전환을 해야만 하는 때가 왔습니다. 또한 어떤 노동환경인지, 탄소발자국이 얼마나 발생했는지, 제품/서비스가 지역사회를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제품 생산-유통 내부적으로 발생하는 정의의 문제와 제품/서비스가 가진 사회적 가치의 잠재력이 강력한 판매 강점으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소비자들은 가치 소비의 행위자로서 제품/서비스의 사용자를 넘어서 해당 제품의 소문을 일으키고, 스스로 캠페인 담당자자 판매담당자로 그 확산에 이바지합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지속가능한 발전을 담보하지 않은 제품/서비스의 경우, 불매운동을 벌이거나, 해당 기업에 문제의식을 제고를 위하여 집단적인 액션을 펼치기도 하고(화장품어택, 배달어택 등), 구조적 문제의 해결을 위한 국회 청원을 올리기도 합니다. 이 시대의 게임체인저(game changer)는 어떻게 함께 잘 살아나가는지에 대한 윤활유를 만들어내고, 사회적 문제-환경문제-정의의 문제의 솔루션으로 비즈니스를 하는 이들이 될 것입니다.

제가 운영하는 소우주는 제로웨이스트샵이기 때문에 외부적으로 12번(책임 있는 소비와 생산), 13번(기후행동), 14번(수생태계 보전), 15번(육상생태계 보전), 17번(목표 달성을 위한 파트너십)의 목표 달성을 지향하며, 내부적으로 3번(건강과 웰빙), 5번(성평등), 8번(양질의 일자리와 경제성장), 10번(불평등 감소), 11번(지속가능한 도시와 지역사회)을 지향합니다.

Q. 본인의 비즈니스/활동이 지향하는 사회적 가치는 무엇인가(비전과 미션)? 사회적 가치의 실천이 본인에게는 어떤 의미이며, 지역사회에는 어떤 영향을 끼치기를 바라는가? (3min*5 명=15min)

이제부터는 "전주에 머물기로 한 청년들"이라는 주제로 패널분들이 전주에서 소셜임팩트가 담긴 활동을 진행하는 이유를 들어보고, 각자의 경험과 인사이트를 바탕으로 "청년들에게 새활용센터의 역할은"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 나눠보겠습니다.

1. 전주에 머물기로 한 청년들

2019년 기준, 전주의 인구 규모는 654,772명이며, 청년(19세~39세)은 184,446명입니다. 전주시 청년의 전입과 전출에 대한 통계를 살펴보면, 총전입 42,500명, 총전출 42,596명으로 전입과 전출 사이의 큰 차이는 보이지 않습니다. 전주시에 전입한 청년들의 3년 내 전입과 1년 내 전입의 추이를 비교해 볼 수 있었는데, 25세부터 39세까지의 나이대의 전입이 두드러지며²⁹), 전입 사유로는 '주택'이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²⁹⁾ 전주시청-통계마당-통계 DB-전주시 청년통계-2020년(2019년 기준) 참조

<전주시 전입 사유: 3년 내 및 1년 내 전입>

(단위: 명)

								(E) // 0/
	3년 내							
	전입인구	가족	건강	교육	교통	주택	직업	기타
전주시 전체	259,149	52,840	1,225	8,717	8,193	121,859	29,641	36,674
청년 전체	93,409	22,301	245	3,656	3,303	38,556	15,136	10,212
	 1년 내							
	전입인구	가족	건강	교육	교통	주택	직업	기타
전주시 전체	113,431	23,617	547	4,535	4,317	51,832	15,324	13,259
청년 전체	44,375	10,691	107	2,041	1,885	17,533	8,576	3,542

자료: 전주시「주민등록인구」

전입자들은 전라북도 내에서의 이동이 가장 많으며, 전남권에서의 전입보다는 수도권과 기타지역에서의 전입의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납니다.

<전주시 전입 전 거주지: 3년 내 및 1년 내 전입>

(단위: 명. %)

									, –	11. 0, 707
	3년 전입	-	전라! (전주시		수도 (서울, 인천	경기,	전남 (전남, :		기타 ⁷ (나머지	
전주시 전체	259,149	(100.0)	211,502	(81.6)	15,830	(6.1)	5,377	(2.1)	26,440	(10.2)
청년 전체	93,409	(100.0)	74,195	(79.4)	7,833	(8.4)	2,947	(3.2)	8,434	(9.0)
	II .	내 인구	전라 (전주시		수도 (서울, 인천	경기,	전남 (전남,	_	기타 [;] (나머지	
전주시 전체	113,439	(100.0)	94,806	(83.6)	7,577	(6.7)	2,860	(2.5)	8,196	(7.2)
청년 전체	44,375	(100.0)	35,753	(80.6)	4,079	(9.2)	1,715	(3.9)	2,828	(6.4)

자료: 전주시「주민등록인구」

전주시의 간단한 청년통계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제부터는 패널 각자의 고유하고 특수한 이야기를 들어 보려 합니다. 실제 나고 자란 곳이 어디인 거와는 별개로 성인이 되어 자신의 삶을 꾸릴 곳으로 이주하여 지내는 것은 타의든 자의든 필연적으로 발생합니다. 보통 수도권/광역시는 '기회의 도시'로 인식이 되며, 기회를 잡고 성공하기 위해 중소도시의 청년들이 더 큰 곳으로 떠나곤 합니다. 그리고 '안정적이고 평안한 삶'이 중요해지는 중장년층들은 중소도시, 자연에 가까운 외곽으로 떠나 사는 삶을 꿈꾸기도 합니다.

저는 본가가 서울이고, 대학진학을 위해 처음 전주에 왔습니다. 서울과 전주에서 각각 직장생활을 경험하였고, 현재는 전주에서 창업한 상태입니다. 아래의 표는 제가 서울에서 직장생활을 하는 대신 전주에서 창업하기로 하게 된 분석내용입니다.

<어디서 뭘 하고 살아야 하는가_2020년 03월쯤_고민의 흔적>

구분	취 업	창 업	문화 생활	주거 생활	
서울	좋은 경험을 위한 좋은 직장이 많음. 치열한 경쟁.	분야별 규모별 다양한 창업 활동이 일어남. 투자의 기회가 많음. 잘난 성공사례가 많음.	양질의 문화생활 향유 가능.	큰 비용 적은 평수	
서울에서 먹고살기	연봉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	창업할 이유가 없음	소비의 영역	주거의 질=연봉	
전 주	경험을 키우기 위한 직장의 다양성 부족.	의미 있는 창업 활동이 발생하면 쉽게 주목받음. 시도 안 된 것들이 많음.	다양성 부족. 자질 아쉬움.	적은 비용 큰 평수	
전주에서 먹고살기	취업할 이유가 없음	창업을 시도해보기 좋음	창업 아이템의 도출 (생산의 영역이 됨)	전주에 머무는 이유	

일하는 의미, 기쁨, 보람을 느끼며 자기 성장을 느끼고 싶은 제가 직장을 찾는다면 서울에 올라가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입니다. 다만, 어떤 직장에서 일하든, 나의 성과가 제 이름이 아닌 회사의 이름으로 남는 것을 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전주에서 서울보다 넓은 평수의 집에서 살 수 있는 것이 너무 만족스러웠고, 지키고 싶었습니다. 전주에서 내 이름으로 먹고살기, 곧 프리랜서가 되거나 창업을 하는 일입니다. 2020년 저는 짧고 깊게 프리랜서 경험도 해보았고, 창업도 하였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전주에서 창업하는 것의 장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 (1) 서울과 비교하여 적은 비용으로 창업의 가능성을 실험 실패할 때 손실 비용 복구 부담이 적음
- (2) 전주에서 아직 시도되지 않은 창업 아이템이 많음 먼저 선점하는 효과를 누릴 수 있음
- (3) 전주에 살면서 부족하고 아쉬운 것으로 창업을 하면, 전주 소비자들의 강한 지지를 받고 시작할 수 있음
- (4) 사회적 가치가 있는 비즈니스는 지자체와 여러 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기 쉬움
- (5) 사회적 가치가 있는 비즈니스는 지역 다양한 매체들의 콘텐츠가 되기 때문에 홍보/마케팅의 효과를 자연스럽게 누릴 수 있음

소우주는 전주의 소비자들에게 개인의 행복과 평화를 위한 제로웨이스트 라이프스타일을 제안합니다. #제로웨이스트 사용을 하지 않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모를 수 있는 분들에게 가치 소비의 첫 번째 시작점으로 작용하고자 합니다. 또한 이미 가치 소비를 실천 중인 분들의 고충과 행복을 나누는 동반자가되려 합니다. 전주가 비교적 작은 도시이기에, 한 다리 건너면 모두 아는 사이가 될 수 있는 곳이기에, 존재를 윤택하게 만드는 캠페인이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다고 믿으며, 개인의 삶의 변화가 지역의 변화로까지 번질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Q. 언제부터 전주에서 지냈는가? 비즈니스/경험 면에서 전주에 머물기로 언제 결정하였는가? 그 이유는? 전주는 본인의 분야의 비즈니스/활동을 이어나가는 데 있어 어떤 생태계/인프라를 지니고 있는가? 본인의 비즈니스/활동이 전주시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 실제로 전주에서 창업/활동을 하였기에 더 유리했던 것들은 무엇이 있는가? 반면 전주에서 활동하기 때문에 생기는 제약/불편함/단점은 무엇인가? (해당 질문 중 몇 가지만 뽑아서 답변을 해주셔도 괜찮고, 전체적으로 뭉뚱그려서 답을 해주셔도 좋습니다.) (8min*5명 = 40min)

2. 청년들에게 새활용센터의 역할은

전주시새활용센터 '다시봄'은 새활용 생산과 소비 활성화를 위한 시민 공유플랫폼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전주시 자원 선순환으로서 새활용, 가치에 소비하는 문화, 시민 자치적 환경가치 실현의 비전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http://www.juccb.or.kr/main/inner.php?sMenu=A2000) 전주시새활용센터 '다시봄'이 사회적 가치를 실천하는 청년 창업가/활동가에게 어떤 공간/기관/프로그램이 되어야 할지 그 역할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아래의 표는 제가 생각한 새활용센터 '다시봄'의 의미에 대한 해석입니다. 패널 각자 처지에 따라 새활용센터에 대한 해석과 기대하는 역할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실현 가능성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다양한 층위와 관점에서 나올 수 있는 다양성을 나누는 것에 집중하겠습니다. 오늘 나온 이야기들로 이제 시작을 맞이하는 '다시봄'의 어깨를 무겁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런 생각도 가능하다고하는 반짝거리는 영감이 되기를 바랍니다.

<새활용센터 '다시봄'의 의미 개인적 기대 및 해석>

7 13	새 활용 센터	다시봄
구 분	(Upcycling / Creative Reuse)	(again + See / Spring)
공 간	성매매 업소 건물	Sex의 전시, 거래 -> 제로웨이스트의 확산
두게	성매매 집결지 선미촌이자	선미촌·노송동의 '다시봄'이 주민들의 삶의
동 네	노송동 주민들이 거주하는 주택가	활력이 되고, 자랑스러움이 됨
2) A	고즈가 'OAFA 티보즈리' 서로	전주의 대표적인 업사이클링
지 역	전주시 '2050 탄소중립' 선포	브랜드/비지니스/캠페인 성공 사례 배출
ון דו	새활용의 가치에 반응하는	생산-소비 패러다임 전환의 핵심 역할
시 민	소비자이자 캠페이너	단순 소비자가 아닌 캠페이너
크리에이터	새활용을 소재로 콘텐츠 제작,	버려지는 것 -> 물건/물성/소재에 대한 인식
<u> </u>	생산자	재고
창 업 가	새활용을 소재로 비즈니스, 생산자	버려지는 것 -> 자원, 비즈니스, 일자리창출
ਤੀ ਹ <u>ੀ</u> .	새활용 인프라 구축 및	전주의 여타 기관들에 새활용의 가치 전파,
기 관	시너지를 위한 파트너십	실천 독려, 정보 교류, 연대
य जो य	새활용의 시도/실험을 위한 문턱이	성공-실패의 결과가 아닌 시도와 실험의
플랫폼	없는 커뮤니티 플랫폼	과정에서 나오는 데이터 아카이브

Q. 본인이 생각하는 새활용센터의 의미와 '다시봄'의 의미는 무엇인가? 새활용센터가 꼭 수행해야 하는 역할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해당 역할을 잘 수행하기 위해 꼭 지켜져야 하는 사항은 무엇일까? (5min*5명=25min)

소우주는 '다시봄'에서 시민과 함께 하는 활동을 함께 하고 싶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자원 수거에 대한 캠페인/도전을 함께 진행해도 좋을 것 같고, 어떤 것이 소재가 될 수 있는지를 알리는 콘텐츠를 게시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새활용으로 생산되는 제품들의 유통-판매 채널이 되고 싶습니다. 또한 소우주 업사이클링 제작라인을 구축하여 시제품을 제작하는 데 도움을 받고 싶습니다. 이미 안 입는 옷이나 기증받은 천을 활용하여 소량으로 제작하는 제품들이 있지만, 새활용센터를 통해 제작하게 될 시제품은 보다 대량생산되어 국내 및 해외시장까지 목표화를 하여 판매할 수 있는 제품이 되지 않을까 기대해봅니다.

Q. 패널의 활동/사업과 새활용센터가 연계하여 진행하면 좋을 만한 것은? 본인의 활동/사업에 새활용센터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역으로 새활용센터가 본인들의 활동/사업을 활용해줬으면 하는 부분이 있는가? (3min*5명=15min)

저는 3년 동안 지원기관에서 하나의 프로그램을 맡아 A to Z 모든 것을 운영해왔습니다. 프로그램이 잘 운영되고, 기관이 훌륭한 곳이 된다는 것은 분명한 '누군가'의 노동을 통해 가능합니다. 지원기관에서 일하는 사람은 직장인일까요? 활동가일까요? 저는 지원기관의 운영자가 영혼은 집에다 두고 출근하여 월급만큼의 시간을 채우고, 업무를 수행하는 직장인의 마음이라면 유의미한 성과를 만들기 곤란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운영진이 자신을 갈아 넣어 결국 번아웃이 기다리는 곳으로 스스로를 내던지는 것도 금물이라 생각합니다.

새활용센터의 지금과 미래를 책임지는 것은 곧 '다시봄'의 센터장님을 포함한 운영진들, 직원분들입니다. 패널 중에는 지원기관을 운영해본 상황에 있는 분도 계시고, 기관 프로그램의 지원을 받아본 경험이 많은 분들도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경험을 토대로 솔직한 이야기를 나누는 것으로 이 자리를 마무리하고자 합 니다. 다만, 지난 경험의 성토회로 끝나지 않도록 부탁드리며, 잘 되기 위한 발전적인 방향으로 내용을 정 리해주시기 바랍니다.

Q. 본인들이 경험한 지원기관에서 정말 인상 깊었던 최고/최악의 경험은? 지원을 받는 입장에서 운영자들에게 바라는 점은 무엇인가? 무엇이든 좋으니 추가로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3min*5분=15min)